metro®
메트로 2015년 7월 6일 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News p/04



의경, 추첨으로 선발

Economy p/06



신세계면세점, 주차장에 발목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광고탄압? 아니되므니다

한국선 재벌 대변 광고주협회 나서 언론찍어내기 열중
청와대도 방조… 아베 "비판언론도 지켜줘야"와 대비돼

이슈 분석

한국광고주협회회원사들의 연간 광고선전비 총액은 대략 11조원에 달한다. 이 중 1조원 정도가 신문 등 종이매체에 할당된다. 광고주협회가 언론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돈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뒷배경에 있는 삼성, 현대차 등 돈주인들이 해당언론을 혼내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광고주협회는 실체도 모호한 이른바 '사이비언론', '유사언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뒤 '찍어내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청와대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다. 조중동과 연합뉴스, 공중파 등 기득권 매체들까지 이에 적극 동조한다. 이들 중에는 전두환 시절 언론탄압의 아이콘 허문도의 재림을 기원하는 이도 있다.

5일 반론보도닷컴 홈페이지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제안한 '포털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필요성과 사전작업으로 먼저 포털에서 사이비언론을 퇴출시켜야한다는 광고주협회의 주장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반론보도닷컴은 광고주협회의 기관지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5월 28일 사이비언론과 어뷰징매체를 포털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뉴스제휴평가위 구성을 언론에 제안했다. 사이비언론이란 주로 기업 광고·협찬과 관련있는 개념이다. 광고주협회는 뉴스제휴평가위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광고·협찬의 집행자가 스스로 기업 광고·협찬을 기준으로 사이비언론과 정도언론을 판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따르면 2014년 국내기업의 총 광고비는 약 11조원이다. 지난해 국가예산의 약 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돈은 정부지원을 받는 일부 공영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의 생명줄이다.

이들 광고비 집행자들이 사이비언론을 스스로 규정짓는다면 재벌 대기업의 입맛에 맞는 언론이나 언론권력을 쥔 대형언론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재벌 대기업에 비판적이거나 만만한 영세언론들은 사이비언론으로 낙인찍혀 고사당할 수 밖에 없다.

광고주협회는 지난 1일 메트로 신문 한 곳만을 딱 찍어서 사이비언론이라고 공개했다.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알려진 나머지 '찍힌 언론들'은 대부분 중·소언론들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3일 성명을 내 '신종언론탄압'이라고 경계하고 나선 이유다.

인터넷기자협회는"광고주협회는 힘없고 약한 매체들에게만 집중된 '나쁜 언론'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정 '나쁜 언론'이 있다면 보도자료를 뿌릴 게 아니라 민·형사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지금도 허위기사 등으로 기업을 협박하는 언론을 법정에 세우고 있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광고주협회가 뭔데 검찰·판사 행세를 하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광고주협회의 월권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은"사이비언론은… 광고주협회 쪽의 입김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는 '포털에서 유사언론의 퇴출'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조만간 광고주들의 승낙없이는 포털 입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막대한 정부 돈을 받는 연합뉴스는 '퇴출 사이비언론'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시리즈 기사를 토해내며 광고주들과 짝짜꿍을 맞추고 있다.사실상 정부가 광고주협회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언론에 대한 응징은 광고료 수입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제일"이라거나 "경단련(한국의 전경련에 해당)을 움직이고 싶다"는 자민당 소장파 의원등의 발언으로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야당·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부러운 것은 우리가 극우라고 미워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태도다. 그는 3일 "아베 정권을 혼내는 언론이라도 그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언론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기업광고를 통한 언론통제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분위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한줄 News



▲ 4대강 수계에 녹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구성되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녹조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더 증가한 186명이며 사망자는 전날과 동일한 33명이라고 밝혔다.

▲ 중국 연수 공무원의 버스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머무르던 최두영(55) 지방행정연수원장이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5일 한화케미칼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 한화케미칼 회사 측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1100억원대 EWTS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철길(60)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2일 실시되고 응시원서 접수는 8월27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6일부터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를 시작한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발길을 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잡기 위한 서울 야시장 행사가 오는 8월28일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5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됐다.

▲ 재벌닷컴 조사결과 작년에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30대 그룹 가운데 KT 현대 두산 한화 한진 동부 KCC 등 14개 그룹이 지난해에 직원 수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 부산발 괌행 대한항공 여객기 KE2115편(B737-800)이 5일 오전 3시6분께(현지시간) 비가 내리는 괌 공항에 착륙하다 미끄러져 활주로를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들어가 멈췄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공 여부를 사실상 좌우할 국민연금이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물산 지분이 11.61%(1867만1098주)로 늘어났다.

▲ HMC투자증권 조사결과 올해 1~6월 신용등급이 하락한 업체는 88개로 이미 작년 연간 수준(100개)에 육박한 반면 상승한 업체는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삼성이 미국의 기업평가기관인 '명성연구소'(Reputation Institute·RI)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가장 평판 좋은 기술기업(Technology company) 1위로 선정됐다.

▲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기업 등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9조2752억원 늘어 2010년 이후 월간 단위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유승민의 마이웨이

친박 "국회법 개정안 무산이 사퇴명분"

5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정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시한이 임박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성립하지 않고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게 되면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사퇴하지 않을 때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충청권 의원들은 앞서 6일 이후 강력한 입장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내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단 대응을 준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 사퇴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 서명을 완료해둔 만큼 6일 이후 의총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6일 사퇴하면 원내 지도부가 사라져 추경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과 협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유 원내대표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비박계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하다는 강경론에서부터 명예로운 퇴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서 중재역 역할을 자임하다가 유 원내대표의 명퇴 쪽으로 의견을 바꾼 김무성 대표는 주말에 외부 일정 없이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박계의 사퇴 압박에도 유 원내대표가 6일 사퇴를 할지는 미지수다. 유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7월 임시국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6일 본회의를 마치더라도 원내대표직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와 결산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는 7일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등 당장 사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8일부터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안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추경안을 가능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또 원내 사령탑으로서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에 진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상태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주말에 지역구인 대구에 머물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상경길에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다음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명분이 된다며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표결을 안하기로 한 (지난달 25일) 의원총회 결론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리스 국민투표 후폭풍은 5일(현지시간)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국제 채권단의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오후 7시(한국시간 오전 1시) 끝난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포르투칼, 이탈리아, 스페인에 강력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그리스를 포함한 이들 네 국가들은 PIGS로 불린다. 2008년 미국의 뉴스위크가 유럽에서 재정적자가 너무 커 경제위기를 맞고 있던 네 나라에 붙인 이름으로, 몸이 너무 무거워 잘 날지 못하는 돼지를 연상시킨다. 사진은 포르투칼의 수도 리스본 시민들이 그리스 국민들이 협상안에 '반대' 표를 던지기를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장관 청문회는 제2의 황교안 청문회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다. 당초 6일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하루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사실상 제2의 황교안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5일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총리가 검찰 출신에 법무장관을 지냈고, 청와대는 황 총리를 지명하면서 사정총리 역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법무장관 공백기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성과 없이 일단락된 데 주목하고 있다. 황 총리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법사위 야당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 측에서는 "일단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일찌감치 "깃털도 못뽑은 부실수사"라거나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신상털기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특검 공세나 정치검찰 공세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측에서는 "정책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변의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다. 민변 소속 8명의 변호사는 자신이 진상 규명 결정에 관여한 과거사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권력놀음에 민생자루 썩는 줄 모른다

법안2소위, 29건의 안건 중 한건도 처리 못해
'유승민 찍어내기' 핑계로 여야 의원들 '딴짓'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앞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와는 별도로 민생법안은 소홀히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재의결 불참은 공식화했지만 크라우드펀딩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 동원령을 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해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지난 한 주동안 여야가 보인 행태는 한마디로 '권력놀음에 민생자루 썩는 줄 모른다'로 요약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웹페이지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7건의 법안을 포함해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 자체 법안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최종 심사되는 곳이다. 법사위가 업무를 게을리하면 상임위 논의가 마무리된 법안이라도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가 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7건의 타 상임위 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2소위(타 상임위 소관 법안 심사)에서 개의한지 불과 15분 만에 모두 처리됐다. 이미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법안2소위는 1일 열린 회의에서는 하루 종일 예정된 29건의 안건 중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21분 개의한 1일 회의는 오전 회의시간 동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을 상정해 논의만 하다 오전 11시 30분에 정회했다. 오후 2시 41분에 속개한 회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여야 간사 두명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한두명 씩 회의에 들렀다가 다른 볼일이 있다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안을 모두 상정했지만 정원의 과반수에도 못미치니 헛일이었다. 의원들을 대신해 보좌관들이 내놓은 해명은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으로 인해) 원래 소위 일정이 하나도 없어 다른 일정들을 잡았는데 국회가 갑자기 정상화되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위원장의 재촉에 하루종일 모시는 의원들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날 법안2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는 50여명의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하루종일 대기했다. 이들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아리랑TV 사장도 있었다. 모두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자 긴 시간 대기했지만 한 마디도 못해보고 어두워진 국회를 떠나야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새정치, 국회법 개정안 휴지되면 '박근혜법' 재발의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압박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점을 들며 새누리 측에 표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여권의 투표 불참이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면서 이미 중재안에 합의한 만큼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의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휴지되면 박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박근혜법'을 전체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그대로 재발의하는 초강수도 둘 예정이다. 의총에서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표결 불참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의논하게 된다. 법의 재발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행정입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의 입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野 "與 투표불참은 헌법기관임을 포기한 처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이 1998년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금의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더 짙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 25개를 개정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 정국을 지속해서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과거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즉시 재발의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발굴한 모법 위배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서 표결 불성립이 됐을 경우 즉각 정회를 요청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정회 시간에는 본회의장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대회 이후 다시 본회의에 참석,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아베 공식사과에도 언론탄압 '후폭풍'

도쿄주재 외신기자 성토 이어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업광고를 끊어 비판언론을 짓뭉개야 한다'는 측근들의 발언을 공식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거세기만 하다. 특히 일본에 주재 중인 외신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베 정권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고주들이 스스로 기업광고를 끊어 비판언론을 짓뭉개는 시도가 한창이지만 침묵 또는 동조하는 국내 상황과 대비된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에게서는 "아베 정권의 본질을 드러냈다"거나 "보도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회장인 미국인 기자 제임스 심즈는 "전후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발언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보도에 압력을 가하려는 몇 건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전 도쿄의 주요 TV 방송국 각사에 보도에 관한 요청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프랑스 르몽드지 필립 메스메르 기자는 "의견이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의 파멸을 요구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했다. 프랑스 RTL 방송의 조엘 르잔돌 고이즈미 기자는 "일본에 있어서 수치"라며 "국내외 여론이 아베 내각의 정치적 수법과 개혁에 반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한겨레신문의 길윤형 도쿄지국장은 "이번 발언은 아베 신조 수상과 가까운 의원들과 작가로부터 나와 아베 정권의 본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에 안 든다고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헤이트 스피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주재 중국인 기자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을 하는 정치가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그들에게는 중국의 독재에 대해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통신의 바실리 그로블린 도쿄지국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많건 적건 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측근들의 발언을 사과하면서 "(일본은) 신문이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여야 한다. 아베 정권을 혼내는 언론이라도 그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 그런 언론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成리스트’ 이인제·김한길 수사 이어간다

수사팀 일부 잔류 지휘 ‘유종의 미’ 의지 보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남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씩이 남아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 연속성, 조직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수사팀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사팀에 남을 부장검사 급은 주영환 부장검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검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사건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의혹을 수사했다.

리스트 의혹 수사에 임시 파견된 특수3부 인력은 전원 복귀한다.




이인제 김한길

그동안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일단 원소속으로 복귀하되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수사지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수사팀을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남은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김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각각 성 전 회장에게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검찰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도 수사팀에 남은 과제다.

수사팀은 김 전 대변인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 안에 무너진 건물 잔해와 함께 주인 없는 안전모가 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 없었던 안전담당자 처벌 관건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 사고로 또 다시 ‘위험 외주화·안전 불감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 측과 해당 협력업체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 조사를 위해 환경안전팀 등 4곳과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현대환경 부산사무실, 울산 현장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작업 일지, 안전점검일지, 폐수저장흐름도 도면 등을 확보했다.

5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전 한화케미칼 측이 가스 누출 점검을 10분 만에 마친 후 협력업체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의 적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맨홀 내부 가스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 한화케미칼 측 안전담당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불감증’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으로 작용됐다면 한화케미칼 측과 해당 협력업체는 책임을 간단히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홍원기자

의경선발, 면접 폐지… 11월부터 추첨으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오는 11월부터 기존 면접 대신 추첨제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과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 대신 추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안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 중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방식이다.

응시자나 응시자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추첨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임을 감안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능력검사, 인성검사로 구성된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폐지하고 인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경 배치에도 추첨을 도입한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경을 부대로 배치할 때 군번(생년월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의무경찰 선발 시험. /연합뉴스

지방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경을 우선해서 뽑아가는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하고 향후 다른 부대와 같이 추첨으로 배치한다.

다만 국회경비대, 정부서울청사, 경찰청·서울청 자체 경비, 가거도 경비 등 4개 부대는 우선선발을 유지하되, 선발기준에 적합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이홍원기자 h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강 세 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57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0	14	19	39	40	43	2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694,762,792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8,887,389
3등	5개 숫자 일치	1,627,494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결국 메르스에 두손 든 삼성서울병원

감염자는 물론 직원까지 총체적 관리 실패
메르스 치료 배제… 환자 전원 타 병원 이송

병상수 1959개,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3800여명과 병원관련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해 9000여명의 방대한 조직, 바로 삼성서울병원(이하 삼성병원)이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글로벌·세계 일류라고 홍보하는 삼성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숙주 병원이 되면서 총체적인 관리 실패로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메르스 환자는 물론 직원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며 급기야 부분 폐쇄조치를 당했고 5일에는 메르스치료에서 배제돼 메르스 환자 전원을 지정 병원으로 이동시켰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5일 "삼성병원 메르스 환자 전원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동 완료했다"며 "현재 삼성병원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다"고 말했다.

5일 삼성병원에서 치료하던 메르스 확진환자는 총 16명으로 이중 1명이 완치 퇴원했고, 나머지 15명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보라매병원 등으로 이동이 완료됐다.

이렇게 삼성병원이 그간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허술한 감염 관리 행태를 보이다 결국 메르스 치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굴욕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메르스 초기대응 때부터 예견되어 온 사항이었다. 삼성병원을 찾은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고, 의료진과 시설 관리 등 병원 관리 시스템 전반에도 취약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삼성병원이 국민과 보건당국의 신뢰를 잃은 이유는 삼성병원장의 사과에 이어 삼성병원 무기한 폐쇄조치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사과까지 발표해 진화에 나섰지만 병원의 역량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5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메르스 환자 15명 전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병원 VIP실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아버님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신다. 환자분들과 가족 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직접 사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삼성병원의 메르스 환자 전원을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라는 조치를 내렸다. 타 병원 감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메르스 진정국면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이 전원 이송조치카드를 꺼내든 것은 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능력도 없고 의료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병원임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규모나 수준에서 최고라 자부하던 삼성병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발표된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 감염을 보더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진 감염이 아예 없고, 강동경희대병원 등 더 늦게 메르스 감염이 시작된 병원도 삼성병원보다 감염사례가 적게 나왔다. 전문가들은 삼성병원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 관리나 보고체계 등 삼성병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병원은 세계 곳곳에서 암 같은 중대한 질병에 노출되면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이 병원의 위암 상대생존율은 67.5% 수준으로 미국(26.3%, 유럽 24.1%)보다 월등하다. 이런 명성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하루 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으로 추락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발병건수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026명이다. 그 다음은 한국(186명)으로 아랍에미리트(76명)를 가볍게 넘어섰다. 삼성병원에서만 확진된 환자가 91명으로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을 뛰어넘었다. 이미 지난달 14일에 이 병원의 격리자수는 3000명에 육박하며 세계 최고 감염병원으로 낙인찍혔다.

한편 진정세를 보이던 메르스 사태는 11일 만에 강원도에서 일반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신규확진자는 51세의 여성으로, 앞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완치된 132번 환자의 부인이다. 당국은 이 환자가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재개원 앞둔 평택성모병원 소독 지난 5일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진원지인 경기 평택성모병원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방역업체 직원들이 병실과 응급실 등 병원 내부 곳곳을 소독하고 있다. 평택성모병원은 지난 1일 재개원 예정이었지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훈증소독을 한 차례 더 해달라는 권유를 받아 추가 소독을 마치고 6일부터 재개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檢 '공군 EWTS 납품사기' 정철길 사장 기소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정철길(61·사진) SK 이노베이션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SK C&C에서 EWTS 사업을 총괄하는 공공·금융사업부문 부문장 및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110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정 사장은 EWTS의 중요 구성장비인 C2(통제 및 주전산장비)의 연구·개발 작업 등을 SK C&C가 수행할 것처럼 하청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편으로는 C2의 신규 연구·개발 작업 등을 SK C&C의 하청업무 및 책임 범위에서 면책받는 내용의 약정을 별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사장은 C2의 신규 연구·개발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SK C&C가 C2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처럼 방사청을 속여 연구·개발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SK C&C는 하벨산사의 기존 제품 또는 국내외 제조 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구입한 제품을 납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청이 지급한 납품 대금은 이 회장과 SK C&C 등이 하청과 재하청 대금으로 꾸며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합수단은 EWTS 납품 비리에 연루된 윤모(57) 전 SK C&C EWTS 담당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예비역 공군 준장 권모 전 SK C&C 상무와 강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도 구속 기소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정옥근 前해군총장 비리 추가 기소

통영함 납품비리 관여

옛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모(56·구속기소)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과 김모(57·구속기소)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은 ROC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해군 최고실력자인 정씨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1960년대식 HMS가 차세대 구난함인 통영함에 장착되는 빌미가 됐다.

합수단은 H사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63·구속기소)씨가 "HMS 납품을 돕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강모(44·구속기소) H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 정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정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해군이 HMS 구매를 준비하던 2008년 8~9월부터 여러 차례 정씨를 찾아가 납품 청탁을 하면서 비리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합수단은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정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씨 추가 기소를 끝으로 방산비리의 출발점인 통영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

주차장에 발목잡힌 '신세계 면세점'

2.5㎞내 공용주차장 수용 능력 465대뿐… 이마저도 포화 상태

이달 10일 시내면세점 입찰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가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의 신세계DF를 강력한 후보자로 점찍었다. 하지만 주차공간 부족, 복잡한 교통, 강북 지역의 면세점 밀집과 같은 문제를 종합하면 신세계의 면세점 낙찰은 멀기만 해보인다.

신세계가 밝힌 대형버스 수용 능력은 56대로 7개 입찰 기업 중 6위다. 업체들이 밝힌 대형버스 수용 능력 1위 HDC신라 면세점(대형버스 393대)의 7분의 1 수준이다. 한화갤러리아(200대), SK네트웍스(175대), 현대백화점(135대)에 절반도 못 미친다.

신세계는 반경 2.5km내 주차장들과 임차계약을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버스 50~100대가 주차할 장소만 확보된다면 관광버스를 회전시켜 10분 내외로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세계의 주장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5일 신세계백화점이 위치한 서울시 중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중구청이 지정한 총 39개의 노상(19)·노외(20) 공용주차장이 존재한다. 이중 노외주차장 20곳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은 중구청 시민 위주로 전용주차공간으로 분배된 상태다.

노상주차장 총 19곳 중 신세계 반경 2.5km내에 존재하는 17곳에는 약 465대의 주차가 가능하지만 이는 신세계면세점 고객만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다. 시간당 6000원의 주차비에도 항상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북적이는 것이 중구 노상주차장의 현실이다. 5일 기자가 해당 주차장 중 몇 곳을 방문했지만 주차할 공간은 없었다.

또한 신세계 본점이 위치한 명동상권은 서울시에서도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곳이다. 서울시의 '2014년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 본점 입구를 지나는 남대문로의 통행속도는 평균 시간당 14km까지 기록된다. 이는 서울시 평균인 시간당 25.7km보다 11.7km나 늦는 것으로 명동상권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세계 반경 2.5km 내 공용주차장(노상)		
시설명	주차대수	소재지
국제화제빌딩옆	12대	소월로 10
그린빌딩옆	28대	퇴계로 24
남대문피혁상가남측	20대	세종대로 5길
다동쉼터	7대	다동길 11
대림상가	56대	을지로 19길
연세세브란스빌딩뒤	15대	세종대로 2길
영국대사관옆	22대	세종대로 99
코오롱빌딩옆	18대	무교로 21
한국은행 뒤	22대	남대문로 39
한진면세점앞	18대	퇴계로 18
해운센타빌딩앞	18대	소공로 94
뉴국제호텔앞	12대	세종대로 22길
삼풍상가	96대	을지로 20길
이화여고앞	12대	통일로 20길
진양상가옆	92대	마른내로 8길
청소년회관뒤	8대	수표로 67길
한국관광공사옆	9대	청계천로 40

현재 해당 지역에는 평일 평균 200대의 버스가 오가며 주말에는 500대 이상이 통행한다. 시간당 11.7km로 10분이면 약 1.9km를 움직이지만 여기에 신세계의 버스 50~100대가 추가된다면 정체는 더욱 심화돼 이동 거리는 더욱 줄어든다. 또 버스 이외의 이용 고객은 면세점 접근이 더욱 힘들다.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면세점 포화상태인 강북 입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세계가 신규 시내면세점으로 낙찰될 경우 중구에는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동화면세점 등 4개의 시내면세점이 밀집하게 된다. 여기에 현재 낙찰이 유력시된다고 전망되는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이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추진 중인 HDC신라면세점까지 들어서면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반경 4㎞내에 5개의 면세점이 입지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지향하는 정부 기조에 반대되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1148만명 중 중국인 관광객이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이들 가운데 60% 이상이 명동과 소공동 일대 면세점을 방문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신세계가 남산-명동을 잇는 관광루트를 발전시킨다는데 가뜩이나 혼잡한 곳에 끼어들어 고객을 나누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증권가는 신세계를 강력한 후보로 점찍는데 뭘 보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탄탄한 대기업이니 사실상 입지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이같은 교통문제에 여러차례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상반기 세계 선박수주 반토막… 韓 선방

세계물주량 작년의 49.2% 불과 韓, 96% 수준… 中, 21%로 '뚝'

올해 상반기 글로벌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주 실적을 거둔 반면 중국은 5분의 1로 줄며 직격탄을 맞았다.

5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328만CGT(수정환산톤수)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발주량(2699만CGT)의 49.2%에 불과한 규모다.

상반기 한국의 수주량은 592만CGT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616만CGT)의 96.1% 수준이다.

반면 중국의 수주량은 256만CGT로 전년 동기(1186만CGT)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본도 상반기 수주량(268만CGT)이 전년 동기(604만CGT)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수주량은 중국보다 12만CGT 앞서며 한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반기 수주실적에서 일본이 중국을 앞선 것은 2005년 상반기(일본 745만CGT, 중국 489만CGT)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48척, 209만CGT로 집계됐다. 5월(71척, 264만CGT)에 비해 23척, 55만CGT 감소한 수치다.

CGT 기준 6월 국가별 수주실적은 한국(88만CGT), 중국(45만CGT), 일본(1.6만CGT) 순으로 한국이 지난 2월 이후 5개월째 1위를 지켰다.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월별 수주실적에서 1위를 지키다 올해 1월 한차례 일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15만톤급 셔틀탱커.

지난달 전세계 수주잔량은 1억899만CGT로 전달에 비해 약 72만CGT 감소했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4096만CGT), 한국(3280만CGT), 일본(1969만CGT)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주잔량은 지난해 말(3439만CGT)에 비해 159만CGT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중국은 4733만CGT에서 637만CGT 급감했다. 수주잔량이 매달 100만CGT씩 줄어든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10월 수주잔량에서 한국을 앞서며 세계 1위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선박 인도량에서는 한국이 656만CGT로 중국(628만CGT)을 눌렀다.

지난해 하반기(한국 579만CGT, 중국 519만CGT)에 이어 2개 반기 연속 1위다.

반기 인도량 기준으로 중국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에 앞선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반토막이 났지만,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주 실적을 거뒀다"며 "중국의 수주 부진은 주력 선종인 벌크선 시장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상반기 전세계 벌크선 발주량은 55척, 93만CGT로 전년 동기(585척, 1162만CGT) 대비 12분의 1 규모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

그리스 보다 삼성전자에 쏠리는 눈

그렉시트는 이미 반영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관심↑

이번주(6~10일) 코스피는 2080~2120선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그리스 디폴트 공포감이 국민투표 결과와 함께 빠른 진정세를 보이는 한편, 관심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에 집중되며 이는 대형주의 실적에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6월29일~7월3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68% 상승한 2104.41포인트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주 초반 2060선에서 하락 출발했으나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일 장중 한때는 211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다만 주말 구제금융 관련 그리스 국민투표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발표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이번주에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한국시간 6일 공개) ▲삼성전자 가이던스 발표(7일) ▲미국 알코아 실적발표(8일) ▲한국은행 수정 경제전망 발표(9일) 등 이슈가 준비돼 있다.

◆그리스 악재, 주가에 '선 반영'

우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그리스 그렉시트(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국민투표에서 '긴축찬성' 의견이 우세할 것이란 게 그 이유다.

그리스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한국시간 5일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채권단이 기존 2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걸었던 협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채권단은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올 경우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찬성 44%, 반대 43%)와 카파리서치(찬성 47.2%, 반대 33.0%), 포르토테마(찬성 57%, 반대 29.0%) 등의 조사 결과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리스 디폴트 우려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악재라는 점과 S&P 등 기관이 그리스 문제가 다른 유로존 국가로 번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의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어닝시즌, 경계감 '부상'

그리스 불확실성이 증시에 선 반영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줄줄이 낮춰 잡고 있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이 증권사 23곳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집계해 발표한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2조6000억원, 7조2000억원이다.

현대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시장 전망치였던 7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IM 부문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당초 기대에 미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BK증권도 "IM 부문은 갤럭시S6 출하량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부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영업이익 전망치로 7조300억원을 제시했다.

HMC투자증권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증권사 중 가장 낮은 규모인 6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대신증권(6조6890억원), 동부증권(7조원), NH투자증권(7조70억원), KDB대우증권(7조330억원) 등도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7조에 미달하거나 간신히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보배기자 bobae@



학군, 녹지, 생활환경! 목동에서 누리고 싶은 No.1의 가치만을 허락합니다.
목동 아덴프라우드
쌍용 藝家 예가
대한민국 교육의 힘!
12년을 기다려온 목동의 마지막 자리!
목동 명문학군으로 앞서갑니다.
목동의 명문학군
쾌적한 생활만족
59㎡ 혁신평면
총 650세대 (예정)
홍보관 오픈!
59㎡ (예정)
84㎡ (예정)
목동의 가치에
중·소형 프리미엄을 더하다
등촌역 (9호선)
염창역 (급행)
양화대교
용왕산 근린공원
목동 종합운동장
SBS
양화초등학교
목동역 (5호선)
달마을 근린공원
신목중학교
강서고등학교
등마초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봉제산 근린공원
※본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덴프라우드의 5가지 "PREMIUM"
목동의 명문 학군 교육 프리미엄
쾌적한 녹지를 품은 그린 프리미엄
서울 어디로든 사통팔달 교통 프리미엄
합리적 공급가 1600만원 대 가격 프리미엄
환금성 높은 59㎡ · 84㎡ 중·소형 프리미엄
NC백화점
원당근린공원
강서힘찬병원
아덴프라우드 홍보관
아웃백
육칠팔 강서직영점
빕스
강서송도병원
공항대로
발산역 4번출구
매드포갈릭 오렌지팩토리
교육특구에 자연특권을 더하다 – 목동 아덴프라우드
문의전화 1600–4880
업무대행사 우바개발산업 시공예정사 쌍용건설 신탁사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
■ 시행 : 목3동지역주택조합 ■ 업무대행사 : 우바개발산업 ■ 시공예정사 : 쌍용건설 ■ 신탁사 : 무궁화신탁 ■ 대지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324–47번지 일원 ■ 지역/지구 :2, 3종 혼재지역 ■ 대지면적 : 24,843.00㎡ ■ 연면적 : 89,212.54㎡ ■ 규모 : 총 650세대, 지하 3층 / 지상 23층 6개동 ■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상기 홍보물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을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대 은행, 6월 주택대출 9조원 이상 늘어

월 증가폭 2010년 이후 최대치… 총액도 120조 증가
잇딴 금리인하 영향… 가계부채 증가 우려 목소리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달에 비해 9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기업 등 국내 7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1조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말의 330조9403억원보다 9조8964억원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의 채권을 매각한 점을 반영한 실질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다.

앞서 이들 은행은 지난달 안심전환대출분 19조1716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팔아 유동화했다.

결국 한 달 사이의 실질 증가액은 9조2752억원인 셈이다. 월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파악되는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 5년간 증가액을 보면 지난해(2조5928억원)와 2013년(2조283억원), 2012년(1조2871억원), 2011년(2조1159억원), 2010년(1조7617억원)으로 6월 증가액은 3조원도 안됐다.

반면 지난달 증가폭은 작년보다 3.6배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도 급증했다.

2010년 6월 232조3271억원이던 주택담보대출액은 5년 만인 지난달 321조439억원으로 43.0% 증가했다.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120조원(51.7%)가량 확대됐다.



여기에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 6월 등 4차례에 걸쳐 내려간 기준금리가 영향을 미쳤다. 금리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5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대까지 내려갔다.

시중은행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는 지난달 사상 최저치인 2.98%까지 떨어졌다.

한편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해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에 대해 "부동산시장의 특징적 변화 중 주택 매매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으로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유례없는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대출 상품의 확대 등으로 금리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폭발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리인상에 대비해 그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5월 주택 전·월세 전환율 7.5%

"2개월 연속 하락세"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5월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전월 대비 0.1%포인트 빠진 7.5%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0.7%포인트가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올 들어 3월까지 보합세를 보이다 4월과 5월 두 달 연속해서 뒷걸음질쳤다.

전·월세전환율은 대체적으로 지방(8.6%)이 수도권(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북이 10.7%로 최고를 기록했고, 충북(9.9%), 강원(9.3%), 전북(9.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는 6.6%를 보인 서울이었다. 세종시는 6.9%에서 6.7%로 0.2%포인트 내리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가 각각 9.1%와 8.1%로 평균을 웃돌았다. 아파트는 5.7%에 머물렀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50%로 내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의 전환 상한은 6.0% 이하로 적용돼야 한다"며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상한선보다 높은 7.5%로 나타나 여전히 임차인들의 월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소비자중심경영 강화"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및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후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가운데)과 이재흥 상무 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오른쪽), 한용석 소비자보호부장(왼쪽)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금융사 '소비자 보호 중심' 민원 평가

금융회사에 대한 연례 민원발생평가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뀐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와 소비자정보 공시, 금융사고 등으로 세분화되며, 중·소형사는 자율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2015년도 대상)부터 종합등급 제도는 사라진다. 대신 항목을 10개로 세분해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절대평가한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와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 5개다. 다만 금감원이 서면·현장점검을 병행해 직접 평가하는 대상은 종전과 같다.

올해 평가 대상은 81개사로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그간 금감원 민원평가를 받지않았던 중소형사에 대해 자율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민원 발생이 급증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한다. /백아란기자

조용병 신한은행장 "금융환경 변화, 선제적 준비해야"

2015 하반기 워크숍 진행

조용병 신한은행장(사진)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임직원의 변화를 주문했다.

5일 신한은행은 조 행장과 임원, 본부장 등 100여명이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용인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2015년 하반기 워크샵'을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행장은 "하반기 금융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와 경영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환경 변화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등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비해 기민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영업 현장에서도 보다 세심하게 고객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외 다양한 경제변수의 변화에 대응하고 강한 영업력을 발휘하기 위해 G.P.S. Speed-up 관점에서 제도와 프로세스 등 조직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하반기에도 지속하자"며 "신한의 리더인 임원, 본부장들이 변화와 혁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은 지난 4월 창립기념사를 통해 일하는 방법론으로 제시한 G.P.S. Speed-up 관점의 상반기 성과 리뷰, 하반기 전략 추진 방향 공유, 지속적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별토론으로 진행됐다.

또 신한 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채널과 제도, 조직문화 등 은행조직 전반에 걸친 주제를 가지고 조별토의를 논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홍익대학교 김한얼 경영학과 교수를 초청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한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외부 초청강의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변화와 혁신의 패러다임 속에서 금융환경을 둘러싼 교란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인지하고 전략적 직관과 통찰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건설업계는 지금 M&A 중

동부, 회생계획안 통과 매각주관사 선정 추진

극동, 우선협상 대상자 이달 내에 선정 계획

남광토건, 매각 재추진 이달 말 법원에 보고

극동·동부건설·남광토건 등이 최근 인수·합병(M&A)을 위한 절차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올해 주택시장 성장세로 최근 몇년간 지지부진했던 매각절차가 본격화 된 것.

5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관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91.6%, 회생채권자의 93%,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동부건설은 이달 중순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매각공고를 내고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극동건설 채권단은 최근 응찰한 인수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7월 중순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극동건설 매각주관사인 한영·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16일 M&A 본입찰 마감 결과 예비실사를 거친 4개사 모두 참여 의향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1300억원 규모 회생채권이 채권단과 인수의향자 간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미뤄졌다. 인수자의 경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 외에도 남은 회생채권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동건설 M&A에 큰 변수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지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미 본입찰에 3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채권단이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택할 지 아니면 단속 인수자를 선택할지의 상황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광토건도 이달 중 매각을 추진한다.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실패후 세번째 M&A 시도다. 남광토건은 이달 말 법원에 매각 관련 보고를 하고 허가가 나는 대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조기졸업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전년보다 7계단 오른 34위를 기록했다.

동부건설은 '센트레빌'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하이텍 등 동부그룹 우량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점이 매력적이다. 현재 자산프리미엄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광토건의 경우 최근 현금 변제금액을 3943억원에서 809억원까지 감소시켰다. 출자전환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도 면했다.

올해 매각에 성공한 건설사의 호조세도 이들 업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1월 두바이투자청(ICD)에 매각된 이후인 지난 3월 14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현재는 3년 만에 현재 5곳(총 5333가구)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시공예정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다. 또 신입사원 78명을 채용하고 해외수주도 강화하고 있다.

EG건설에 매각된 동양건설산업도 최근 민자사업을 수주했다. 동양건설이 수주한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으로 전체 공사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지지부진하던 건설사 M&A도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며 "쌍용건설과 동양건설산업 등 매각후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가 늘면서 인수자들도 건설사 매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북적이는 2015 부동산투자박람회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15 부동산투자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올 상반기 청약경쟁률 9.4대 1

2006년 이후 최고치

지난 상반기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메르스(MERS)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은 9.4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최고 경쟁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광역시 50.3 대 1을 기록, 지방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밖에 서울은 9.9 대 1, 수도권은 4.7 대 1, 기타 지방은 4.2 대 1를 보였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3년 4.5 대 1의 경쟁률에서 2014년 3배 이상 오른 15.7 대 1의 두 자리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1년 만에 3배 이상 오른 50.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 광주, 울산 시장은 최근 꾸준한 청약경쟁률 상승했다. 반면 대전은 세종시의 영향을 받아 청약 성적이 저조했다.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대규모로 이전해오는 신도시로 신규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분양가 측면에서도 대전 내 분양단지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수도권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2011년 0.6 대 1의 청약경쟁률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하며 2015년 상반기의 경쟁률은 4.7 대 1을 나타냈다.

청약성적이 좋았던 단지도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에 몰렸다. 1순위 청약경쟁률 기준으로 100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는 총 12개 단지로 지방광역시가 9개, 수도권이 2개, 기타 지방이 1개로 지방광역시가 압도적이다. 또한 분양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과 신도시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김형석기자

연립·오피스텔도 '테라스' 열풍

아파트에서 시작된 테라스 열풍이 연립·오피스텔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테라스는 비선호층으로 꼽히는 1층이나 최상층의 판매촉진을 위해 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테라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연립이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에도 도입 사례가 느는 추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라스하우스 연립주택이 올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테라스란 공동주택의 옥외공간에 주어지는 작은 정원이다. 실내생활을 옥외로 연장해 가족 휴식공간이나 텃밭, 바비큐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2000년대 중후반 활발히 공급됐던 타운하우스도 최근 테라스 연립이란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의 편의성과 단독주택의 쾌적성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 만든 주택이다. 하지만 중대형 위주에 가격도 비싸 수요자에게 외면을 받았다.



테라스하우스 연립은 이 같은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그대로 이어가되, 중소형 위주의 구성으로 단점은 극복했다. 또 분양가를 낮춰 환금성은 높였다. 덕분에 도심 아파트 생활에 지친 수요자들의 선택이 이어졌다.

최근 대림산업이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만 보더라도 평균 20.0대 1, 최고 40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영건설이 용인 신봉동에서 선보인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역시 평균 9.4대 1, 최고 28.9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테라스를 확보한 오피스텔도 인기다. 수익형부동산 공급이 늘면서 테라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최고 80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힐스테이트 광교'는 전용면적 77㎡ 오피스텔에 절반이 넘는 약 39㎡의 테라스를 제공했다.

지금의 테라스 열풍을 이을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도 대기 중이다.

GS건설은 경기도 광교신도시 B1블록에서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84~115㎡, 총 268가구로 이뤄졌다.

화성개발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B1블록에 '삼송화성파크드림 파티오'를 분양 중이다. 59㎡, 349가구로 이뤄진다. 층별 특화설계를 적용해 최상층은 다락방과 테라스를, 1층은 정원과 일부 테라스를 제공한다.

풍산건설은 7월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일상 7블록에서 '동탄역 리치안' 오피스텔을 분양할 계획이다. 17~22㎡, 총 355실 규모로 일부 세대에 테라스를 도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목동 아덴프라우드, 조합원 모집

쌍용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3동 324-47번지 일원에서 시공 예정인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목동 아덴프라우드'가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하 3층, 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59㎡ 371가구 ▲84㎡ 279가구 등 전체 650가구 규모다.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게 특징으로, 목동 일대에서 59㎡가 공급되기는 12년 만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등촌역과 신목동역을 이용해 강남까지, 5호선 목동역을 이용해 여의도·마포 등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공항대로와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은 물론, 서남부권으로도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

남향 위주의 세대가 80%에 달해 충분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램프폭을 6.5~7.0m로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는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전 가구 환기성능 1등급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구현하고, SF(팬분리형) 주방 배기로 실내소음 최소화와 배기효율 향상에 신경을 썼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멀티온도조절기, 절수페달 밸브, LED 조명, 태양광에너지 등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서울·인천·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면 조합원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조합원은 계약 시 청약통장 유무와 무관하며 사업승인 이후 전매와 지정모집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1600-4880 /박선옥기자

국내 주식형펀드 호조 그리스 사태에도 굳건

국내 주식시장이 그리스 사태에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식형펀드도 지난주에 이어 강세를 나타냈다.

5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3일 공시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국내 주식형펀드의 가치는 한 주간 0.93% 늘었다.

코스피 중형주와 코스닥 지수의 강세에 힘입어 중소형주식펀드가 1.21%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어 일반주식펀드와 K200인덱스펀드가 각각 1.06%, 0.74% 상승했다. 소유형 기준으로 모든 유형의 펀드 가치가 상승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펀드 1774개 가운데 1585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수익률을 웃도는 펀드는 7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수익률 0.93%↑
중소형펀드 1.21% 최고
국내 채권펀드 약보합세

헬스케어와 중소형주, 배당주 관련 펀드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증권주와 현대차그룹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들은 부진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약보합세였다.

초단기 채권 펀드가 0.03%의 수익률로 채권형 펀드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일반 채권 펀드도 0.01% 상승했다. 중기 채권 펀드와 우량 채권 펀드는 각각 -0.05%, -0.01%의 수익률로 부진했다.

한편 해외 주식펀드는 중국 증시 급락과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겹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인도 주식과 동남아 주식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펀드는 한 주간 4.07% 하락했다. 중국 주식 펀드가 한 주간 7.31% 떨어져 가장 저조했다.

인도 주식펀드는 한 주간 2.47% 상승하며 해외 주식 펀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올렸다. /김민지기자

편의점, 메르스 뚫고 매출 고공행진

BGF리테일·GS리테일 등 실적 호조에 신고가 경신 담뱃값 인상 효과도 한 몫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유통업계가 부진한 사이 편의점만은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편의점주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수혜주로 떠올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BGF리테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6% 오른 18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는 18만65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GS리테일은 전날 대비 2.88% 오른 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만43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대표적인 국내 편의점 업체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주가는 올 들어 각각 141.83%, 108.57% 올랐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크게 늘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말 기준 1조8849억원에서 현재 4조5584억원으로, GS리테일은 1조9750억원에서 4조119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불었다.



백화점, 대형마트가 메르스 여파에 고전하는 사이 편의점은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수혜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 담뱃값 인상·대형마트 반사이익 '효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액은 총 31조514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 가운데 편의점 소매판매액은 1조4600억원으로 전년 보다 무려 33.5% 증가했다.

백화점과 슈퍼마켓 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2.7%와 0.8%로 소폭 상승했고, 대형마트 판매액(면세점 포함)은 8.7% 증가한 것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성과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BGF리테일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8.3% 오른 1조55억원, 영업이익은 26.48% 상승한 488억으로 추정했다. GS리테일의 매출액은 1조4414억원으로 15.23%, 영업이익은 528억원으로 25.29% 늘어날 전망이다.

유주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편의점의 2분기 실적 성장은 담배가격 인상 효과, 즉석식품과 음료 판매 호조에 기인한다"며 "담배판매 증가율은 1월(5.3%)→2월(7.7%)→3월(46.4%)→4월(53.5%)→5월(59.9%)로 확대되고 있고, 흡연율 회복 추세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 연구원은 그러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편의점 매출동향을 근거로 2분기 편의점 성장세를 종전 12%에서 28.9%로 수정한다"며 BGF리테일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9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메르스로 대부분의 유통업태가 고전한 6월에도 편의점은 30%대의 고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한다"며 "메르스 여파에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대형매장을 회피하고 지역 소규모 매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3분기는 이익률 높은 음료, 빙과매출이 집중하는 편의점의 최고 성수기"라며 "담뱃값 인상은 여전히 긍정적인 변수이고, 편의점 출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며 GS리테일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목표주가는 6만원으로 유지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연 '지스타 2014' 엔씨소프트 관에서 게이머들이 '리니지 이터널'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엔씨소프트,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 주가 꿈틀

리니지이터널 테스트 완료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전문가 "중·장기 투자 긍정"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97% 오른 2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엔씨소프트 주가는 지난 5월 20일(종가) 21만8500원까지 올랐다가 6월 10일에는 18만1500원까지 빠졌다. 그러나 최근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엔씨소프트 주가가 최근 1개월 동안 부진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인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 기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거 신작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지난 2010~2012년 사이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39배였다. 현재 주가의 2015년 PER은 19배로 글로벌 평균 22배를 하회한다. 따라서 신작 모멘텀을 기대하는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도 엔씨소프트에 대한 장밋빛 실적 전망치를 쏟아내고 있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게임 리니지의 '드래곤 보물 상자 이벤트' 효과가 엔씨소프트 2분기 실적에 반영된다"면서 "2분기 리니지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한 759억원, 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3% 감소한 2004억원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이터널' 포커스 그룹 테스트(FGT)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이 게임은 블레이드앤소울 이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최대 기대작으로 엔씨 클라우드 기반으로 출시되는 첫번째 게임이다.

공 연구원은 "리니지이터널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소규모 그룹 테스트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대폭 부진했으나, 2분기 실적은 매출 2040억원, 영업이익 60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8%와 34%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엔씨소프트 실적 개선세의 배경으로 ▲리니지1 회복 ▲리니지2 이벤트 재개 ▲인건비 감소 등을 꼽았다.

그는 "나아가 하반기 이후 다양한 일정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PC게임과 모바일 게임 상용화 일정 등을 주목해야 할 모멘텀"으로 분석했다.

김윤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엔씨소프트가 2분기부터 실적 향상과 더불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엔씨소프트의 2분기 실적은 리니지 아이템 판매가 직전 추정대비 호조를 보였고, 신작 없이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2분기 매출액은 2070억, 영업이익 620억원으로 11%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삼성물산 합병 안갯속…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확신 심어주지 못하자 반발 거세져
삼성미래전략실 등 책임론 부각돼

삼성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3세 승계 카드'로 추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위기를 맞으면서다. 삼성은 오는 17일 합병 주주총회까지 지분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번 합병을 계획하고, 주도한 삼성 컨트롤타워의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가 안갯속이다. 외국·기관·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이 ISS(기관투자자서비스)의 합병 반대 의견을 따라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1·2위 자문사의 합병 반대…코너에 몰린 삼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심각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비율의 불합리성 △자사주 매각의 문제성 △지나치게 긍정적인 합병 이후 수익 전망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자문 시장 2위 업체인 글래스 루이스도 합병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외국 투자 기관 상당수가 ISS의 의견을 따를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시장 상황에 어두운 외국 투자 기관은 ISS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으로서는 지분 33%정도를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 단속이 최대 관건인 셈이다.

◆ 국민연금 결정·매각 자사주 의결권, 합병의 '열쇠'

이번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 때문에 합병 찬·반의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SK-SK C&C의 합병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유는 '합병 비율과 주주가치 훼손'이었다. SK 건은 총수 우호지분이 많아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삼성에 '사전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기 위해서는 ISS의 논리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SK케이스를 통해 국민연금은 삼성의 추가적인 액션을 기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일모직은 지난달 30일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합병 후 배당 상향과 거버넌스·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다.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라는 합병 효과도 설명했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도 문제의 불씨로 남아 있다. 서울지방중앙법원은 지난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10일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했다.

법원이 자사주 매각을 문제 삼아 의결권이 막힐 경우 삼성의 우호 지분은 14.19%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 주주총회 참석률 70% 가정 시 삼성에 필요한 찬성 지분은 47%다.

◆ 삼성 컨트롤 타워의 책임론 떠오르나?

일각에서는 삼성 컨트롤타워가 이번 합병작업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작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밀하지 못한 사전 계획은 물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해 ISS의 반대 의견,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공해도 엘리엇과의 법정 공방 잡음 등 상처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우리와 관계없다.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과 관계 없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그룹의 전략·인사·기획·홍보·감사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ISS 보고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물산은 △ISS의 합병 반대 의견이 무책임 하고 △비현실적인 합병 비율을 권고 했으며 △바이오산업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서 신뢰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삼성물산은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로운 합병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팔면 끝?… G플렉스 OS업그레이드 감감무소식

LG '롤리팝' 업그레이드 없어
비슷한 사양 갤노트3와 대조



LG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G 플렉스 OS 업그레이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LG전자가 뷰3에 이어 지난 2013년 11월 국내 출시한 G 플렉스(사진)에 대한 롤리팝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LG전자가 G플렉스 롤리팝 업그레이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통사 서비스센터와 LG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5일 LG전자 관계자는 "G플렉스에 대한 롤리팝 업그레이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모델은 출시당시 2.26Ghz 쿼드코어 CPU를 적용했으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00을 탑재해 최고 사양을 갖춘 제품이다. G플렉스의 사양만 놓고 보면 업그레이드에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G플렉스와 비슷한 사양을 갖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는 롤리팝 업그레이드 제품에 포함됐다. 또 삼성전자는 2013년 4월 출시한 갤럭시S4에 대해 롤리팝을 적용했다.

애플은 2011년 출시된 아이폰4S까지 iOS9을 지원하며 사용자들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제품 OS 업그레이드는 제조사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60만~8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OS 업그레이드 조차 소외 받는다면 애플 같은 충성 고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LG 모바일 커뮤니티 한 관계자는 "뷰3의 경우 화면비율이 4대3이라는 점에서 개발이 힘들었을 수 있지만 G플렉스까지 제외됐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SK "행복동반자 경영 더욱 강화"

5개사 중 4개 동반성장 지수 '최우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개 관계사 중 4개가 최우수 평가를 받은 SK그룹이 '행복동반자 경영'을 향후 더욱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2005년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을 '행복동반자 경영'으로 규정했다.

SK그룹은 최근 정부 동반성장위원회가 11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 SKC&C, SK건설 등 총 4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SK건설은 상대적으로 동반성장에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되어온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SK그룹의 행복동반자 경영이 첨단 업종인 ICT 서비스부터 전통적 산업인 에너지화학과 건설업종까지 골고루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총 19개 대기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SK그룹은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SK건설 등 총 4개 기업이 포함됐다. SK하이닉스가 우수 등급을 받아 전 관계사 최우수 등급에는 못 미쳤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은 3년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동반성장위가 선정한 최우수 명예기업 5개사에 포함됐다. 그룹 단위로는 SK그룹이 2개사로 가장 많다.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되면 향후 1년동안 지수평가에서 한단계 낮아져도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받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SK건설은 지수 평가를 시작한 이래 건설업종으로는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조한진기자



LG전자의 제3회 모바일 사진대전 1등 수상작 '프라하'. /LG전자 제공

LG '모바일 사진대전' 경쟁률 1200:1

출품작 2만6335건
전 대회보다 3배↑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LG G4' 출시 이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연 '제3회 모바일 사진대전'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사진대전'은 LG전자가 2013년부터 3회째 여는 소비자 참여행사로 소비자가 LG 스마트폰으로 사진작품을 촬영하고 응모하는 행사다.

심사위원도 1회는 김중만 작가, 2회·3회는 오중석 작가가 맡고 있다. 올해 출품작 수는 2만6335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로 증가했다.

1200대1의 수상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LG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사진대전에 참여한 일반 소비자들은 G4에 탑재된 '카메라 전문가모드'로 셔터스피드, ISO(감도), 화이트밸런스(색온도) 등을 자유자재로 조절해 전문가 수준의 촬영 솜씨를 뽐냈다.

LG전자는 23점의 수상작과 17점의 우수작을 사진대전 홈페이지(http://www.lgg4mobilephoto.co.kr/web)에 포토갤러리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심사위원을 맡은 오중석 작가는 "이번 제3회 모바일사진대전은 G4의 향상된 카메라 기능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감성적인 사진이 많이 출품됐다"고 총평했다.

이번 행사의 1, 2, 3등은 각각 산토리니, 프라하, 홍콩 여행권(1인2매)을 받고 입선 20명은 소정의 경품을 받는다.

이철훈 LG전자 MC사업본부 마케팅커뮤니케이션FD 상무는 "앞으로도 G시리즈의 비주얼 경험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수입경차, 국내 시장에 낄 틈이 없다

모닝 vs 스파크 양강체제
다양한 경쟁차종 확보위해
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



한국지엠 경차 스파크 /한국지엠 제공



기아차 경차 모닝.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한국지엠의 스파크가 독주하고 있는 국내 경차 시장이 경쟁 차종 부족과 각종 규제 등으로 침체된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경차 기준·규제 등을 완화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사의 피아트 500, 르노사의 트윙고 등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각사에 따르면 기아차 모닝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내수시장에서 총 4만2638대가 팔렸다. 이는 전년 동기 4만6759대에서 8.8%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한국지엠 스파크 판매량은 2만5995대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3만686대) 15.3% 감소한 수치다. 기아차 레이는 올해 상반기 1만3105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1만6984대에서 22.8% 감소했다.

국내 경차 기준은 1000cc미만의 배기량에 차체 크기가 전장 3600㎜, 전폭 1600㎜, 전고 2000㎜ 미만이다.

국내 경차 기준상 피아트 500과 르노 트윙고는 전폭에서 각각40㎜, 46㎜를 초과해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피아트 500은 국내에서 소형차(전장 3550㎜, 전폭 1640㎜, 전고 1555㎜)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다.

르노의 트윙고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트윙고의 크기는 전장 3595㎜, 전폭 1646㎜, 전고1554㎜다.

국내에서 경차는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가 적어 취득·등록세 면제, 통행료·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산차 가운데 경차는 기아차 모닝, 레이와 한국지엠 스파크 등 3개 차종뿐이며 정식 시판되는 수입 경차는 없다.

국토교통부의 경차 기준 변경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시장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은 저유가와 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가 증가한 데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투싼, 한국지엠 트랙스,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의 인기에 힘입어 상반기 소형SUV 판매량은 전년 대비 37.5%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출시된 쌍용자동차 소형 SUV 티볼리는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1만8524대로 집계돼 월평균 300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차 기준을 완화해 경차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도 경차로 수익을 확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입 경차까지 경쟁에 합세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SK종합화학, 폴리에틸렌 시장 본격 공략

사우디 '사빅'과 합작법인 출범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왼쪽)과 압둘라만 알 파키 사빅 부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넥슬렌' 합작법인 계약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SK종합화학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복합화학기업인 사빅(SABIC)과 넥슬렌(NexleneTM) 생산·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계약 서명식에는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과 압둘라만 알 파키 사빅 부사장 등이 참석해 양사가 출자한 합작법인 출범을 공식화했다.

넥슬렌은 SK종합화학이 독자 개발한 고성능 폴리에틸렌의 브랜드명이다.

고부가 필름과 자동차, 신발 내장재, 케이블 피복 등에 주로 쓰이며 기존 범용 폴리에틸렌보다 내구성·투명성·가공성 등이 우수해 단가가 비싸다.

지금까지 폴리에틸렌 시장은 다우케미칼, 엑손모빌, 미쓰이 등 글로벌 메이저 화학사들이 독점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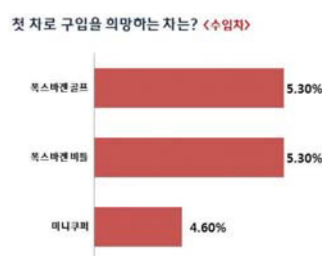
이번 계약에 따라 SK종합화학과 사빅은 50 대 50의 비율로 출자해 자산 71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인 SSNC를 싱가포르에 설립할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지난달 한국넥슬렌유한회사(KNC)를 설립하고 울산 넥슬렌 공장 자산을 KNC에 현물출자했다. KNC는 SSNC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정용기기자

대학생 70% "첫 차는 연비 좋은 친환경차"

현대모비스 선호도 조사
국산차 구매 1위 '아반떼'





현대모비스의 대학생 블로거단 '모비스통신원'은 국내 대학생 70.8%가 친환경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선호도가 높은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HEV)가 71.3%를 기록해 전기자동차(EV) 21.7%, 수소연료전지차(FCV) 6.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지난 5월15일부터 3주간 전국 35개 대학교에서 학생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대학생 자동차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친환경차, 연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친환경차 구매의사를 밝힌 70.8%의 학생들은 연비(65.5%)를 가장 큰 구매요인으로 꼽았다.

첫 차로 구입을 희망하는 차종을 묻는 항목에 국산차 부문은 현대자동차 아반떼(10.5%), 기아자동차 레이(6.1%), K5(5.9%) 순이었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폭스바겐 골프(5.3%), 폭스바겐 비틀(5.3%) 미니 쿠퍼(4.6%)가 꼽혔다.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호감이 가는 차종을 묻는 질문에는 가격대가 높은 대형 차종들이 주로 선택됐다.

국산차 부문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13.8%), 제네시스 쿠페(9.6%), 쉐보레 카마로(5.8%)가 인기를 얻었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아우디 A7(7.5%),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4.6%), 폭스바겐 비틀(4.2%) 순이었다.

선호하는 차량 종류로는 세단과 SUV가 각각 31.9%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정용기기자

아시아나항공, 中 관광업계 인사 200명 초청

관광 활성화 체험 프로그램

아시아나항공은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여행사 사장단, 언론, 파워블로거 등 200명을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5일 아시아나에 따르면 중국 여행사 사장단 150명, 언론인 40명, 파워블로거 10명 등 총 200명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 머무르며 한강유람선 관광, 제2롯데월드 등을 체험한다. 요우커의 인기 관광지인 명동에서 걷기 행사도 참여한다.

중국인 200명의 방한 비용은 아시아나항공과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롯데월드어드벤처, 하나투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행사는 한국에서 메르스로 인해 외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1% 감소(한국관광공사 통계)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아시아나는 전했다. /정용기기자

지엠코리아

대구·경북 캐딜락 첫 진출
수성구에 임시전시장 오픈



캐딜락 임시 대구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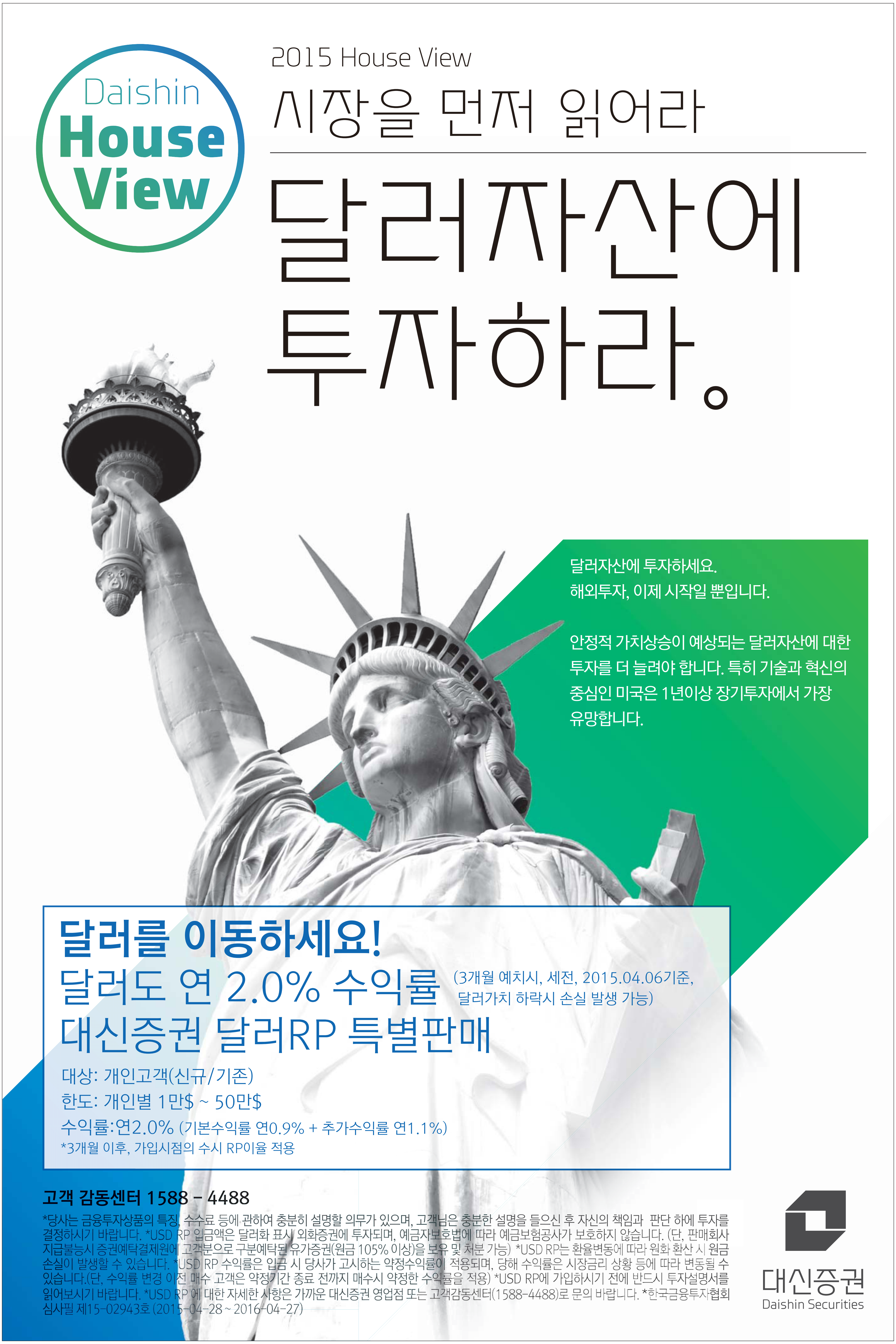
지엠코리아(대표 장재준)가 대구·경북 지역의 첫 번째 캐딜락 딜러로 한영오토모빌을 선정하고 캐딜락 임시 전시장을 열었다.

5일 사측에 따르면 한영오토모빌(대표 김종헌)은 내년 6월 중 완공을 목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네거리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캐딜락 차량 구매부터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 전시장 오픈 전까지 한영오토모빌은 해당 지역 내 캐딜락 고객을 위해 임시 전시장을 운영한다.

임시 대구전시장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들이 집결해 일명 '수입차 거리'라고 불리는 수성구 동대구로에 위치했다. /이정필기자


Daishin
House
View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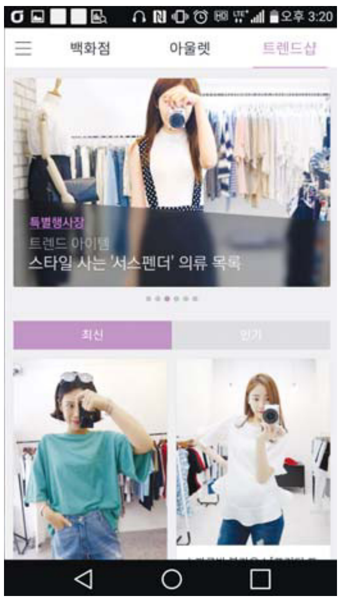
네이버 vs 다음카카오 '생활밀착 O2O 비즈니스' 맞불 전쟁

라인서 쇼핑 후 매장서 받고
터치 한번으로 택시 부르고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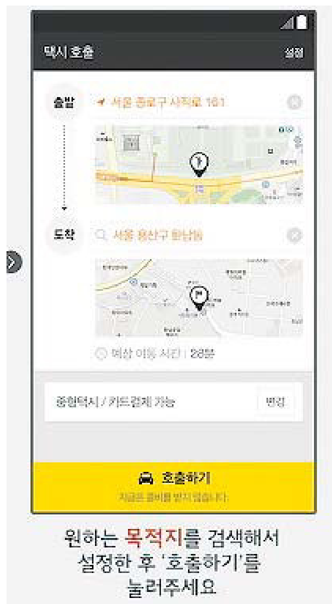
네이버 라인과 다음카카오 카카오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매장에 가서 직접 옷을 입어보는가 하면 택시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부르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시간 택시의 이동경로와 택시기사의 신상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안심귀가를 할 수 있다. 양사는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O2O 비즈니스'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오프라인으로 받거나, 온라인에서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고르고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마케팅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앱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네이버는 '모두'와 '샵윈도' 서비스에 이어 '라인앳(LINE@)'으로 O2O 시장 전방위 공략에 나섰다.



네이버 샵윈도 캡쳐.



카카오택시 사용법.

지난해 12월 론칭한 쇼핑 O2O 플랫폼 '샵윈도'는 소상공인부터 대형 아울렛까지 다양한 매장이 입점해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샵윈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고르거나 결제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이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사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 라인앳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라인앳 계정을 개설하면 라인 메시지로 세일, 신상품 정보와 할인쿠폰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일대일 대화 형식으로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예약 등이 가능하다. 일본서 시작한 라인앳 계정은 33만개에 이른다. 장점은 무료로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 메시지를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소자본으로 마케팅을 펼치기에 유용한 아이템이다.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용자가 주요 이용자다. 한국어 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한국 계정 2만여개가 넘게 생성됐다.

라인 관계자는 "이미 라인앳 친구가 1만여명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라인앳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 등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라인앳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형 O2O 서비스를 지향하는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에 이어 고급형 콜택시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출시된 카카오택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콜수 300만건을 넘어가면서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출시 초기만해도 1만건 수준이었던 일 평균 콜 수는 현재 10만~12만건에 이른다. 7월 말께는 고급택시 사업까지 추가돼 업계 준비 등을 거쳐 8~9월께 고급택시가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유치원·어린이집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인 '키즈노트'를 인수하며 O2O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키즈노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일상과 식단, 공지사항 등을 등록하면 부모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부모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사업 전략에 따라 사용자에게 모바일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모바일 시장에서 전에 없던 시도를 꾸준히 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사내 모델들이 SK텔레콤의 UO 링키지 출시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 와이파이 오디오 출시

무손실 재생 'UO링키지'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5일 고품질 와이파이 오디오 제품인 'UO링키지'를 출시했다.

UO링키지는 가로19cm, 세로6cm의 작은 크기로 음원을 손실없이 재생하는 HiFi 성능의 5W출력의 스피커 2개를 내장했다.

애플의 무선 에어플레이(애플의 고품질 미디어 스트리밍 프로토콜) 공식 인증인 MFi를 획득했으며 와이파이(DLNA, 미라캐스트) 등 유무선 연결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뿐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 PC,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스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UO링키지의 멀티 스피커 기능은 여러 대의 UO링키지를 연결하여 홈 오디오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최대 10대의 UO링키지를 무선으로 연결해 각각의 기기를 중앙과 좌우측으로 설정, 강력한 서라운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리모트 플레이 기능은 IP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음악을 들려줄수 있는 기능이다. 회사에서 집에 있는 아이에게 음악을 들려 줄 수도 있다.

UO링키지는 T 월드 다이렉트 온라인을 통해 우선 출시하고 향후 애플 스토어, T프리미엄 샵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29만9000원이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O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www.u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SKT '티움 모바일' 韓 ICT 위상 높여

<정보통신기술>

방문객 3000명 육박
외국인 비율 20% 달해
광주U대회 IT 명소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광주 U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북문에 위치한 '티움 모바일' 방문객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약 3000명에 육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총 방문객 중 외국인의 비율이 20%에 달하는 등 티움 모바일이 대한민국 ICT(정보통신기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 개막 전부터 4일까지 30개국 6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티움 모바일을 방문했다. 외국인들은 지난 3일 개막식 이후 본격 방문하기 시작해 4일 하루에만 350여 명이 방문했다.


외국인들이 IoT 열기구에서 앞으로 다가올 첨단 서비스를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티움 모바일은 농구코트 2.5배 크기(총 면적 1089㎡)에 달하는 초대형 이동형 체험관이다. 우주 정거장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구현된 ICT 기술기반 11개 서비스 중 특히 인기있는 체험 서비스는 가상현실을 통해 미래 ICT 생활을 엿볼 수 있는 IoT열기구다.

지난 4일 오후 티움 모바일을 방문한 미국인 톰 레이크스트로씨는 "짧은 시간에 모바일 통신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특히 IoT(사물인터넷) 열기구 가상 현실 체험을 통해 미래 생활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티움 모바일은 대회 개막 이틀 전인 1일부터 선보이기 시작해 폐막일인 14일까지 2주간 광주 월드컵경기장 북문에 전시 된다. 전시 관람은 현장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hm0108@

LGU+, 실시간 모바일 게임방송 서비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이동통신사 실시간 모바일 게임방송 서비스를 5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방송 서비스는 LG유플러스 가입 고객에 한해 '아프리카TV'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모바일 게임BJ가 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다. 모바일 게임방송을 통해 방송된 콘텐츠는 아프리카 TV 앱에서 실시간 시청·녹화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BJ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미러볼 기능(전후면 카메라 및 프로필 이미지)을 지원해 일반 시청자는 게임 상황은 물론 방송 중인 BJ의 생생한 표정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채팅을 즐길 수 있다.

최대 1080P·5000K의 고해상도 방송 스펙을 지원, 기존 PC를 통한 게임방송 플랫폼을 뛰어 넘는 높은 품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과 시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게임방송 오픈베타 버전이 적용되는 단말은 삼성전자의 노트4 S-LTE(SM-N916L) 1종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정식버전 출시 이후 점진적으로 지원 단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오픈 전에 게임방송 체험단을 구성해 인기 모바일 게임 BJ 10명도 포함시켰다.

/정문경기자

현대百 면세점, '現代타운' 수혜 받나

GBC-파크하얏트-무역센터점, 지하도시 연결추진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지정·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왼쪽부터 한전부지 조감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파크하얏트호텔 전경.

오는 10일 예정된 관세청의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강남 지역을 유일하게 면세점 입지로 선택한 현대백화점그룹(대표 김영태)이 범 현대가의 주변 '현대타운' 조성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의 면세점 법인 현대DF(대표 이동호)가 신규 면세점 위치로 지목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반경 약 200m내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중인 한전부지의 115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현대산업개발이 건립중인 6성급 호텔인 파크하얏트서울 호텔 시리즈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0일 한전부지에 115층 규모(571m)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겠다는 개발 제안서를 서울시에 최종 제출했다. GBC에는 서울의 랜드마크로써 역할을 할 자동차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사옥을 포함한 전시장·컨벤션·공연장·호텔·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말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이 완료되면 2017년 초 건축이 시작돼 2022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한전부지의 GBC가 완공되면 GBC에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까지는 코엑스몰과 함께 지하도시로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중이다.

GBC 남쪽으로 반경 100m에는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객실 185개 규모(일반객실 147개·스위트룸 38개)의 6성급, 파크하얏트서울 호텔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바로 옆에 파크하얏트서울 호텔Ⅱ를 지을 예정이다. 아직 객실 규모나 착공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파크하얏트 호텔Ⅱ가 신축되면 그간 면적이 좁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웨딩과 연회 등 각종 행사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역 일대에 GBC-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파크하얏트서울호텔로 이어지는 '현대타운'이 조성되는 것이다.

아울러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하며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한다.

마이스(MICE)는 국제회의와 전시회, 관광 등을 아우르는 산업을 의미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돼,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관련 홍보 등이 집중으로 추진된다.

삼성동 코엑스 단지는 전시·컨벤션·축제·맛집 등이 밀집된 문화공간이다. 연간 200회 이상의 전시회와 2500회 이상의 국제회의가 열린다. 주변엔 특급호텔(파크하얏트서울호텔·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인터컨티넨탈 코엑스)·카지노(세븐럭)·도심공항터미널·한류콘텐트복합문화공간 SM타운등도 들어서 있다.

또한 무역센터 반경 5km 내에는 1만1000여 개의 숙박시설이 있고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원 480여 곳이 밀집돼 있다. 강남 대표 축제인 C-페스티벌과 강남 페스티벌 등 9개의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가로수길·압구정로데오·강남역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 쇼핑 명소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삼성역 일대는 또 교통의 요충지다. 지하철 2개 노선(2·9호선)과 39개 버스노선·공항리무진·강남 투어버스 등이 지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철도(KTX)·위례~신사선 등 6개의 철도노선도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강남 지역은 단체 관광을 즐기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보다 개별 관광을 선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어 관광 특수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코엑스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8년 3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약 180만명에서 67%(120만명) 늘어난 수치다. 또 강남구 전체로는 같은 기간 600만명에서 1000만명까지 66.67%(400만명) 늘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시내면세점으로 낙찰되면 단체 관광객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간 면세점 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불법 리베이트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은 요우커가 구매한 면세품 대금의 10~15%를 여행사나 가이드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요우커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저가형 덤핑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다. 강남 일대를 찾는 관광객은 절반은 개별 관광객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BC가 건립되면 본사 통합 사옥에 국내·외 딜러와 대리점 직원 등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관된 비즈니스 해외 방문객이 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남 지역이 MICE 관광특구·한류 중심·의료관광 메카 등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 관광객보다 다양한 개별 비즈니스 관광객의 방문이 늘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시내면세점 '관광객 모시기' 총력

메르스에 관광객 발길 '뚝'
외국인 유치능력 새롭게 부각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유치에 나선 대기업들이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과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관광 경쟁국인 일본으로 쏠리면서 신규 면세점의 새로운 평가 요소로 외국인 유치 능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관광객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감소로 관광업계가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3일 KBS의 사내기업인 KBSAVE(Add Value Entertainment)와 한류 콘텐츠 개발·여의도 지역 관광 상품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을 통해 시내면세점 개관시 63빌딩 4층에 면세점 미디어 카페 'RUE(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초청 팬 사인회, 방송 촬영현장 연계 관광 이벤트, 한류 패션 뷰티 상품 판매 등을 열 계획이다. 또 갤러리아만의 단독 관광상품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양창훈 아이파크몰 사장 등 HDC신라면세점 경영진은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와 북경 현지에서 최대 여행사인 CTS(China Travel Service)와 국영 여행사 CYTS(China Youth Travel Service)의 최고 경영진과 연쇄 회동을 했다. 또 중국 국가여유국, 외교부도 방문해 중국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다.

현대백화점(현대DF)은 이번 면세점 사업에 주주로 참여한 모두투어, 앰배서더호텔(서한사) 등과 협력해 여행·호텔·면세점 중심의 여행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현대드림투어와 협업해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중국 현지 법인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투어도 등도 계획 중이다 .

면세점 입찰 전부터 중국 여행사인 완다그룹과 MOU를 맺은 이랜드그룹(이랜드면세점)은 완다그룹을 통해 중국 VIP 고객을 연간 100명 이상 받기로 했다. 또 중국 진출 21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면세사업에 접목해 중국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는 한국 패션과 뷰티·라이프 스타일, 키즈 상품 등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프리미엄 케이(K)브랜드 전용매장'을 구성하고 세계 최초 ICT 면세점을 구축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계획이다.

호텔롯데(롯데면세점)는 6일 중국 내 해외 지점을 통해 현지 여행사와 MOU를 맺고 중국인에 맞는 여행 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은 자사의 광고 모델인 이민호, 박신혜, 슈퍼주니어 등 한류스타를 통한 해외 마케팅에 주력하고 중국내 여행사는 모객을 맡게 된다.

시내면세점 입찰 업체 한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유치전이 막판에 이르면서 관세청이 발표한 평가 부문 외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며 "최근 메르스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업계를 살리겠다는 상생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여의도를 글로벌 한류 메카로"

한화갤러리아·KBS, MOU
면세점 입찰 위한 승부수



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가 KBS와 손잡고 시내 면세점 입찰에 나선다.

한화갤러리아는 KBSAVE(Add Value Entertainment)와 지난 3일 KBS별관에서 '한류 콘텐츠 개발 및 여의도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지난 1일 한국콘텐진흥원과 체결한 '한국콘텐츠산업 발전과 중소기업·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MOU에 이은 두번째 협약이다.

KBSAVE는 KBS 사내기업으로 한류 관련 비즈니스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협약은 한화갤러리아가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이번 MOU를 체결을 통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63빌딩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면세점을 오픈하고, KBSAVE는 4층에 복합 미디어카페 'RUE(류)'를 개관한다.

양사는 또 63빌딩의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스타 팬사인회, 신규브랜드 론칭, 프라이빗 파티, 현대 미술가들의 게릴라 전시, 국악·버스킹 밴드의 라이브 무대 등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화 갤러리아는 노량진수산시장-63빌딩-KBS-한강유람선-IFC몰-국회의사당 등지로 이어지는 '여의도 코스'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초기 2000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청해진 해운사가 소유권을 포기해 재 입찰에 들어간 한강 수상택시도 한화갤러리의 여의도 코스 개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현기자 minus@



올 여름 '핫'한 수영복, 11번가에 다 있다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래쉬가드, 비키니등을 착용한 11번가 모델들이 최신 유행 비치웨어를 소개하고 있다. SK플래닛 11번가는 올 여름 비치웨어를 특가 판매하는 '마이 패션 레시피' 기획전을 31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롯데百, 아이돌 총출동 '러블리 영 콘서트'

23일 잠실 주경기장 무대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23일 엑소·인피니트·틴탑 등 인기아이돌 그룹 6팀이 출연하는 '러블리 영콘서트'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엑소·인피니트·레드벨벳·틴탑·헤일로·베리굿 등 6팀이 출연한다.

롯데백홧덤은 지난달부터 전국 매장에서 30·60·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각 R·V·P석 초대권(1인 2매)을 증정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영카드 소지 고객에게는 당일 7만원 또는 1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각 A석·S석 초대권(1인2매)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공식 페이스북과 스마트쿠폰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콘서트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초대권(A석·1인 2매)을 증정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베트남 1위 쇼핑몰에 '한국상품 전용관' 개설

36개 기업 369가지 제품 선봬

베트남 1위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 상품 전용관이 처음으로 개설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라자다(LAZADA)'한국 상품관에 국내 기업 36개사의 생활용품과 소형가전, 화장품, 액세서리 등 68종 369개 제품이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라자다는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등 현지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2012년 독일 로켓 인터넷(Rocket Internet)이 론칭한 B2C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부문 1위로 월 1200만명의 접속자와 5000만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36%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트라는 현지 수출 실적이 없는 국내 내수기업 10개사가 이번 한국 상품관 오픈과 함께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라자다 입점을 적극 지원했다. 의류, 액세서리 등 한국산 중소기업 제품의 라자다 한국 상품관 입점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라자다 입점 문의는 코트라 호찌민무역관 홈페이지(pkc.kotra@gmail.com)를 이용하거나 전화(84-8-3822-3944)로 하면 된다.

제2롯데월드, 주차예약 해제 후 방문차량 2배

1~4일 평균 1045대 주차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은 제2롯데월드 주차예약제를 해제한 이후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롯데월드몰 방문 차량이 최근 두달간 평균치보다 두배 가량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1일부터 4일까지 롯데월드몰 하루 평균 주차대수는 1045대로 지난 5~6월 평균 450대 대비 132%(595대) 증가했다. 주차예약 해제 전날인 6월 30일 476대보다는 119%(569대) 늘어난 수치다.

이로인해 마트와 하이마트 매출은 전주 대비 각각 7%, 18% 가량 늘었고 영화관 평균 좌석 점유율은 22.5%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문객수는 38만명으로 전주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34만명에 비해 12% 늘었다.

/박상길기자

"2018년까지 수입 주류시장 선도"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 제주서 간담회

'윈저 더블유 아이스' 인기몰이 가정용 판매·제주시장 공략 포트폴리오 다변화 역량 집중

"이노베이션과 소비자 중심 사고를 토대로 2018년까지 전체 수입 주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조길수(53) 디아지오코리아 대표가 3일 제주도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야심찬 청사진을 밝혔다.

조 대표가 이끄는 디아지오코리아는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왔다. 2013년 취임 직후 이천공장에 적극적인 투자로 아시아 지역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연간 200만 상자 생산 돌파, 3000만 달러 수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지난 3월 론칭한 '윈저 더블유 아이스'가 인기몰이 중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윈저 더블유 아이스는 부산·영남지역에 출시 3개월 만에 취급 영업장 수가 약 3000개로 늘고 영업소의 재주문 비율도 80% 수준에 달했다. 직접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도 많아 대형할인매장 등을 통해 가정용 제품 판매도 시작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이달 윈저 더블유 아이스의 제주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조 대표는 위스키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국내 위스키 소비 감소에 따라 소비자 트렌드와 니즈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위스키 판매량은 약 178만548상자(1상자 500㎖×18병)로 2013년 188만7370상자에 비해 5.4% 줄었다. 위스키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조 대표는 ▲주류의 다양화 ▲음식의 매칭 ▲소비 양극화 ▲여성소비 확대 등을 꼽았다.

조길수 대표는 "지난해 위스키뿐만 아니라 보드카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종합 주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전년대비 50% 이상의 성장을 이뤄낸 기네스를 포함해 몇 년간 두자리 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스미노프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출시한 35도 저도 스피릿드링크 '윈저 더블유 아이스'의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제공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프리미엄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국내 6만4000㎡ 부지에 생산설비와 창고, 수입제품 보세창고, 직매장을 갖추고 위스키 윈저·딤플·조니워커, 보드카 스미노프, 기네스 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제주=김보라기자 bora6693@

CJ푸드빌, 베이징서 해외 외식아카데미 첫 오픈

제빵·커피 전문가 양성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은 중국 베이징의 왕징 소호(Wangjing SOHO)에서 첫 외식 전문 아카데미인 '북경아카데미' 개원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 측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매장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하기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북경아카데미는 554㎡ 규모로 제빵·커피·케이크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론교육실 2개와 실습교육실 5개, 사무공간으로 구성됐다.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CJ푸드빌은 박근태 CJ중국본사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가운데), 곽규도 CJ푸드빌 중국법인장(왼쪽 첫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의 랜드마크인 왕징 소호(Wangjing SOHO)에 외식전문 교육시설 '북경아카데미'를 개원했다. /CJ푸드빌 제공

베이커리 연구·개발(R&D) 공간과 실제 매장(뚜레쥬르와 비비고)이 건물에 함께 있어 제품 개발부터 현장실습, 고객테스트까지 동시에 가능한 최고의 통합교육시설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앞으로 중국에 점포를 열 때마다 이곳에서 배출한 전문가들이 배치될 것"이라며 "이번 개원을 시작으로 상하이, 광저우, 쓰촨 등 중국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4대 지역으로 전문교육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메르스에 물놀이 용품 매출 반토막

롯데마트, 15일까지 할인 행사

무더위 시즌에도 '물놀이 용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5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올해 6월 '물놀이 용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비치볼·튜브·보트 등의 물놀이 관련 용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사태 전인 2011년~2013년 6월 물놀이 용품 매출은 전달 보다 6~10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여파로 소비가 위축됐음에도 전달 대비 3.6배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2.4배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42년 만의 최악의 가뭄과 무더위로 물놀이 용품 매출이 선전을 보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물놀이 용품 업체들은 울상이다. 롯데마트 측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이 물놀이 용품 매출 감소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15일까지 '물놀이 용품 소비촉진 행사'를 벌인다. 행사에서는 물놀이 용품 브랜드 '인텍스(INTEX)사'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래쉬가드' 수영복 브랜드 3종을 30%저렴하게 판매하며 일부 상품에 대해 균일가 행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현기자 minus@

“부패 ZERO 청렴공단 만든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윤리경영 실천 다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하고 책임지는 업무처리, 부패 ZERO 청렴공단’을 제창하며 적극적인 청렴활동 추진과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2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지역본부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패 방지를 결의했다. ‘투명하고 책임지는 업무처리, 부패 ZERO 청렴공단’을 제창하며 적극적인 청렴활동 추진과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 공표로 내부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예방적 윤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렴공단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함이다.

이날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투명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윤리경영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직무에 임할 때,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직원 개인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야말로 클린 공단의 원동력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는 ▲매월 전 직원 대상의 행동강령 교육 실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전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 도서관 개설 등 청렴·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면역력 구조대 ‘홍삼하이생’ 덤 찬스

하이생 ‘1+1 이벤트’
이달말까지 선착순 500명



하이모의 효소식품 브랜드 하이생은 이달 31일까지 면역력 강화를 돕는 홍삼하이생 1+1이벤트 ‘면역력 구조대! 홍삼하이생이 나섰다!’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메르스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31일까지 한달 간 홍삼하이생(60포, 90포) 구매 시선착순 500명에게 동일 제품 1개를 추가 증정한다.

홍삼하이생은 국내산 6년근 홍삼과 국내산 현미를 복합 발효시킨 발효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홍삼분말(홍삼근류 70%+홍미삼 30%) 30%를 함유했다.

특히 진세노사이드 Rg1, Rb1과 Rg3의 합이 1포당 3.5㎎ 이상 함유돼 있어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혈액흐름 개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

환 타입의 ‘홍삼하이생’은 1회 1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이지컷으로 개별포장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1일 3회, 1포씩 씹거나 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다. 식사 전후 언제든지 먹어도 무방하나 식후에 섭취하면 소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이생 관계자는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홍삼하이생을 통해 대한민국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내산 6년근 발효홍삼 건강기능식품 ‘홍삼하이생’의 가격은 60포에 8만원, 90포에 11만원이다. 하이생 홈페이지(www.hisaeng.co.kr)와 전화 주문(1661-1188)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복현명기자 hmbok@

어떤 물이든 버튼 하나로 수소수 뽀르르

솔고 ‘수소샘 디스펜서’
항산화 열풍에 관심 집중
출시기념 100일 체험행사



솔고바이오메디칼(회장 김서곤)이 전세계 어디서든, 어떤 음용수든 버튼 터치 하나로 풍부한 수소수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 디스펜서’(사진)을 출시 했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면역력, 항산화 등의 다양한 건강식품, 기능성 제품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속에 포함된 수소가 인체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들이 잇따르면서 ‘수소수’가 ‘건강에 좋은 물’로 주목 받고 있다.

솔고 수소샘은 특허기술력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으로 최고 1000ppb이상의 수소수를 생성시키는 제품이다.

또한 공기 중이나 물속에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확산하는 수소의 특성을 완벽히 제어, 현존 수소수 생성기 중 용존시간이 가장 길다.

현재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수소수를 마셔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체험 혜택을 제공하는 ‘수소샘 디스펜서 100일 체험 프로젝트’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 수소수 생성기 체험 문의 : 080-600-2020, 홈페이지 https://www.soosoam.com /최치선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제주상록회관에서 ‘제주 근로자건강센터’개소식을 가졌다.

제주에 근로자 건강센터 첫 오픈

안전보건공단
소규모사업장 직원 무료 서비스

제주지역의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 근로자건강센터’가 문을 열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3일제주시 중앙로에 소재한 제주상록회관에서 ‘제주 근로자건강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제주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은 제주한라병원이 맡아 전문의와 상담심리사 등이 상주해 뇌심혈관질환이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직업병 관련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제주도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는 이번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 19곳에 설치돼 있으며, 올해 20곳까지 확대·설치될 계획이다. /최치선기자

롯데리아 “회사-직원 소통 끊이지 않는 조직”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
지역상생·가족경영 실천


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환궁 지청장,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 ㈜롯데리아 노동조합 김완성 위원장,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 강석윤 의장이 지난 1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리아 제공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최근 용산구 전쟁기념관서 노일식 대표, 김완성 ㈜롯데리아 노조위원장 등 사내외 임직원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창조적 노사문화란 노사가 함께 창출해야 할 기업 가치·직원행복 가치·사회적 가치 3개의 가치 체계를 확립해 직원과 사회,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롯데리아는 창조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가 함께 생산성 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창조드림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직원의 연령별로 체계적인 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사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롯데리아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샤롯데 봉사단 프론티어’를 정식 출범했다. 롯데리아 프론티어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고객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롯데리아는 노사와 함께 끊임없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통하는 롯데리아만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또한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직,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달 5월 21일 ‘롯데 가족경영·상생경영 및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을 열고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 성장과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테니스 엘보우’ 임상연구 참가자 모집

이대목동병원
보존치료 무반응 환자 대상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센터장 : 신상진)는 테니스 엘보우(난치성 외측상과염)에 대한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임상연구는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고주파 미세 건절제술 또는 관절경적 건유리술을 시행하여 통증 회복과 기능적 회복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임상연구로 임상시험 기간은 약 1년간이다.

임상연구 참가자에게는 수술 재료비 감면의 혜택이 있으며 이번 연구 대상 질환으로 이전에 수술을 시행받았던 환자는 지원할 수 없다.

문의 :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02-2650-5143) /최치선기자

star bag





영화 출연으로 사랑까지

배우 **이동건**과 걸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이 열애 중이다. 지연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연과 이동건이 최근 한중 합작 영화 '해후'에 함께 출연하며 사이가 가까워졌고 현재는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전했다.

로맨스 드라마로 첫 주연



신예배우 **박소담**이 온스타일의 로맨스드라마 '처음이라서'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카라멜엔터테인먼트가 4일 전했다.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처음이라서'는 처음이라 서툴지만 가슴 설레는 20대 청춘들의 사랑과 고민을 리얼하게 담은 드라마다.



월드투어 10분 만에 매진

그룹 **인피니트**의 두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가 10분 만에 매진을 기록했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 오후 8시 예스24를 통해 진행한 인피니트의 두 번째 월드투어 '인피니트 이펙트(INFINITE EFFECT)'의 일반 티켓 예매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4일 전했다.

소녀시대 컴백 파티 MC



방송인 **신동엽**이 오는 7월 오후 8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야외수영장 오아시스에서 열리는 소녀시대의 컴백 이벤트 '파티@반얀트리'의 MC를 맡는다. 신곡 '파티(PARTY)'의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하는 자리다. 신동엽은 앨범 소개와 소녀시대의 근황을 얘기할 예정이다.

"개그맨으로 알아도 상관 없어요"

'SNL 코리아' 정상훈

배우 정상훈(40)은 누구보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다. 1998년 SBS 시트콤 '나 어때'로 데뷔해 송혜교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청춘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유명세는 잠깐, 이후 긴 무명 세월에 들어갔다.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채 2007년 SBS '푸른물고기', 영화 '전설의 고향'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연기에 대해 혼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연기를 계속해야하나 싶었고 내가 배우로서 연기를 잘하는 건가 싶었죠.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건지, 배우가 되고 싶은 건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트콤으로 데뷔를 하고 자만했던 거죠. 괜히 지하철 타면서 연예인이랍시고 마스크도 쓰고요. 대중이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았던 거죠. 뮤지컬을 만난건 천만 다행이에요. 이런 게 진짜 배우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뮤지컬 배우로서 2006년 '아이러브유'를 시작으로 '김종욱찾기' '올슉업' '스팸어랏' 등의 수많은 무대에 올랐다. 코믹 조연으로 상당한 위치까지 섰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의치 않았다.

"결혼하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보증금 20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었어요. 아내와 약수동의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죠. 겨울이 되면 비탈길 때문에 내려갈 때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방송으로의 길을 다시 터준 것은 선배 신동엽이었다. 정상훈은 tvN 'SNL 코리아'의 5번째 시즌부터 크루로 합류했다. 당시는 세월호 사태로 세상이 슬픔에 잠겨있던 시기여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SNL 코리아6'부터 그의 독무대였다. 거의 모든 콩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공연을 오래해서 그런지 'SNL 코리아'는 준비가 안 된 첫 공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공연에서는 종종 사고가 일어나곤 하거든요. 모든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SNL 코리아'였어요. 생방송이니까요. 방송 30분 전에도 대본이 바뀌기도 했어요. 어떤 악조건의 야외 촬영도 마다하지 않았죠. 일주일 내내

> 18년차 배우 '양꼬치엔 찡따오'로 인생역전
> 뮤지컬 무대 오르며 배우로서의 인생 깨달아

'SNL 코리아'에 매달렸어요."

이후 '양꼬치엔 찡따오'라는 엉터리 중국어로 데뷔 18년 만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각종 예능이며 라디오에 출연했고, 얼마 전에는 캐릭터를 살려 여러 편의 광고도 찍었다. 그의 코믹한 모습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개그맨으로 오해하곤 한다.

"저를 개그맨으로 알아줘도 상관 없어요. 사실 '양꼬치엔 찡따오'는 누가 봐도 개그맨 같습니다. 웃음이 나오니까요. 저를 처음 아는 사람들은 전부 개그맨으로 아는데 오해를 풀려고 일부러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도 제 이미지니까요. 또 다른 무대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개그맨인데 연기를 잘하는구나'라고 여겨도 상관없어요."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계속되는 찌라시 루머, 연예인도 뿔났다

이시영·김보성 강경대응 입장
온라인 환경 변화에 신속 대처

연예인에게 루머는 피할 수 없는 짐이다. 특히 '찌라시'로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는 악성 루머가 양산되는 곳으로 연예인을 괴롭혀 왔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런 악성 루머에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이 아니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루머를 대하는 연예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 이시영(사진)은 지난달 30일 사적인 동영상이 있다는 찌라시로 곤혹을 치렀다.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 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진 것이다.

이에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곧바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시영 관련 루머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이시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본인에게도 상처를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루머 유포자를 찾아내기 위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다.

배우 김보성도 악성 루머에 휘말렸다. 찌라시를 통해 최근 한 영화 촬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에 김보성 소속사 로드FC는 지난 4일 "성추행 찌라시로 인해 김보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무엇보다 본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악성 루머를 대하는 연예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온라인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SNS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근거 없는 소문이 어느 때보다 빨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이상 찌라시 같은 악성 루머의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배우 이다해는 지난해 7월 악성루머를 유포한 누리꾼 2명을 찾아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하기도 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영화 속 서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인생과 같다!
- The warp -
아들바보 억척엄마의 자아찾기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
RID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더 기버:기억전달자〉 브렌튼 스웨이츠
7월 16일 대개봉!
ULTRAMEDIA
|감독/주연|헬렌 헌트 |수입/배급| tcast cinecube |15세 이상 관람가|
SIX SALES

토속신앙과 서양동화의 이색적인 만남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손님

공동체·타자 관계 통해 한국사회 이면 파헤쳐



'손님'이라는 말에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다른 곳에서 찾아온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새로우면서도 낯설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님'에서 '손'의 어원을 따라가면 '인간생활에 해를 끼치는 귀신'이라는 뜻이 있다. 천연두의 역신을 마마 혹은 손님이라 부른 이유다.

김광태 감독의 장편 데뷔작 '손님'에서도 손님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영화의 주인공인 우룡(류승룡)과 그 아들 영남을 뜻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낯선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화는 그림형제의 동화로 잘 알려진 '피리 부는 사나이'의 스토리를 차용한다. 토속신앙과 서양동화의 이색적인 만남이 빚어내는 독특한 정서가 강렬한 첫 인상으로 다가온다.

영화의 배경은 한국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1950년대다. 전쟁으로 아내를 잃고 한쪽 다리까지 다친 악사 우룡(류승룡)은 "눈도 나쁘고 이빨도 썩었고 기침까지 하는" 아픈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 서울로 먼 길을 나선다. 미군이 던져준 종이 한 장만 들고 정처없이 길을 건던 우룡은 우연히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을 찾는다. 촌장(이성민)은 이들 부자를 반갑게 맞이한다. 단 한 가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고 말이다.

'손님'의 긴장과 갈등은 공동체와 타자의 관계를 보여줘 흥미롭다. 완벽한 공동체일수록 외부에서 온 타자에게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촌장이 우룡을 겉으로는 웃으며 반기면서도 속으로는 마뜩찮게 받아들이는 이유다. 그러나 그럴수록 타자는 공동체에 편입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촌장은 우룡에게 마을의 쥐를 잡아달라는 제안을 한다. 우룡을 내쫓으려는 목적의 약속이지만 우룡은 그것이 마을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수락한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러했듯 '손님'의 우룡 또한 쥐를 잡는데 성공한다. 마을 사람과도 친분을 쌓는다. 그렇게 우룡과 영남은 마을 일원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렇게 쉽게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혈연과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촌장의 마지막 결단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영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촌장의 과거를 통해 영화가 다루는 공동체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우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던 영화는 그렇게 한국사회의 내면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우룡이 자신의 아들을 가리키며 "호남에서 태어났지만 이름은 영남"이라고 말하는 대사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다. 15세 이상 관람가. 7월 9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라이브의 황제와 요정을 위한 레시피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 40분



'R&B 요정' 박정현과 '공연의 신' 이문세의 냉장고를 공개한다. 박정현을 위한 요리대결이 우선 진행된다. 최강의 신 스틸러로 등극한 이원일은 자취인들의 등불 김풍과 맞대결한다. 스승 이연복 셰프를 등에 업은 김풍은 이원일을 물리칠 비장의 필살기를 선보인다. 다음 대결은 '허셰프' 최현석과 이태원 조지 클루니로 등극한 미카엘의 대결이다. 이들은 콘서트 전 예민한 속을 달래줄 '콘서트 영양식' 대결을 펼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 10분

지난 주에 이어 불 같이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주인공이 2승 사냥에 나선다. 이에 딸바보 남편 때문에 눈꼴 시린 30대 주부가 도전장을 내민다.



◆ SBS '힐링캠프'

오후 11시 15분

4주년 특집으로 세 MC가 시청자들을 힐링하기 위해 나선다. 이경규는 특기를 살려 시청자들에게 특제 라면을 선사한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주방 설비에 고전한다.



◆ JTBC '비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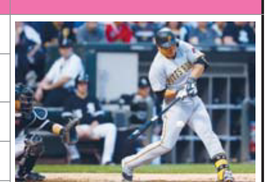
오후 11시 10분

6명의 새로운 비정상들과 함께 하는 첫 방송이다. 요즘 대세 제국의 아이들의 광희가 출연해 '우리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71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1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65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6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0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재)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41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36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틴틴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문화유산 코리아(영어자막) (재)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너를 기억해 (5회)	00 화정 (25회)	00 상류사회 (9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라밤바>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20 1차 세계대전 어느 병사들의 이야기	30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 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2회) (재)		10 올리브쇼 2015 (14회)	30 와일드 순간포착(2) (3회)		
19시	55 JTBC 뉴스룸	40 다녀오겠습니다 (3회)	10 올리브쇼 미니 NEW (9회) 25 유미의 방 (1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3회)	30 42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70회)	00 오늘 뭐 먹지? (77·76회)	00 살인마로 돌변한 동물 (1회)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4회)	40 신분을 숨겨라 (6회) (재)	15 한식대첩 3 (7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3회)		
22시			30 MAPS (2회)	00 사이언스 오브 데인저 (1·2회)	00 설국열차	◆ 해외야구
23시	00 비정상회담 (53회)	00 신분을 숨겨라 (7회)	45 샘킴의 함께쿠킹 (17·13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 비극의 비행기 공중 충돌		02:35 클리블랜드 vs 피츠버그 05:10 뉴욕M vs LAD
24시	30 화이트 스완 (6회)	20 코미디 빅리그 (127회)	20 2015 테이스티로드 (18회)	00 아프리카 들개의 일생	40 그래버스	08:05 LA에인절스 vs 텍사스

칠레, 아르헨 꺾고 코파 아메리카 품었다

결승서 승부차기 끝에 4-1로 승리
메시 '대표팀 부진' 징크스 못 깨

칠레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사상 처음 남미 축구 챔피언에 올랐다.

칠레는 5일(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훌리오 마르티네스 파라다노스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5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120분간 0-0 무승부를 기록하고 승부차기에서 4-1로 앞서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칠레는 1975년 첫 대회가 열린 코파 아메리카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칠레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200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스리백(3-back) 전술의 부활을 주도하며 16강까지 올랐다. 죽음의 조에 속했던 조별리그에서는 스페인을 2-0으로 잡았고 16강전에서는 개최국 브라질을 승부차기까지 끌고갔다.

이번 대회에서도 3명의 중앙수비수를 페널티지역 안에 두텁게 세우는 대신 양쪽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활용하는 특유의 공격적인 스리백을 바탕으로 결승까지 올랐다.

칠레는 알렉시스 산체스(아스널), 에두아르도 바르가스(나폴리)의 과감한 공격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해 나갔다. 전반 9분 바르가스의 기습적인 중거리슛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고, 2분 뒤에는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아르투로 비달(유벤투스)이 날린 왼발 발리 슈팅이 골대로 빨려드는가 싶더니 골키퍼 세르히오 로메로(삼프도리아)가 왼쪽으로 몸을 날려 이를 막았다.



5일 끝난 2015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칠레에 우승컵을 내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그라운드에 털썩 주저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칠레의 공격은 후반 막판 더 날카로와졌다. 후반 37분 찰스 아랑기스(레버쿠젠)가 넘겨준 기습적인 전진 로빙 패스를 산체스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다. 그러나 슈팅은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연장전 30분도 득점 없이 마친 양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는 첫 키커로 나선 메시만 승부차기에 성공했을 뿐 2, 3번째 이과인과 에베르 바네가(세비야)가 모두 실축했다.

3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한 칠레는 4번째로 나선 산체스가 과감한 파넨카 킥으로 아르헨티나 골망을 흔들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대표팀 부진 징크스를 털어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메시는 칠레의 잘 다져진 스리백 수비에 막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측면 공격수 앙헬 디마리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부상으로 전반 29분에 교체되는 악재가 겹쳤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추신수 1안타 텍사스 완패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이틀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지만 팀은 에인절스에 대패했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32를 유지했다.

전날에도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추신수는 이틀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으나 팀은 에인절스에 0-13으로 완패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내야안타를 포함해 5안타밖에 치지 못한 반면 에인절스는 홈런 2개를 비롯해 17안타를 때렸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8회말 대타로 등장, 이틀 연속 교체 출전했지만 삼진으로 물러났다. 시즌 타율은 0.259에서 0.258(194타수 50안타)로 하락했다.

피츠버그는 선발투수 로크의 8이닝 2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발판으로 1-0 승리를 거뒀다. /김민준기자



마루 연기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한 양학선.

햄스트링 부상 양학선, 남은 경기 불참

광주U대회

리우 올림픽 등 출전 위해 6주 이상 재활 시간 필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 중인 체조 스타 양학선(23·수원시청·사진)이 결국 부상으로 남은 경기에 불참한다.

한국 선수단은 5일 "전날 경기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 급성 파열로 부상한 양학선이 이번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광주 출신으로 이번 대회 개막식 성화 점화를 맡는 등 광주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각오가 남달랐던 양학선은 부상 직후에도 남은 경기에 출전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비와 선수 보호 차원에서 남은 경기에 불참하기로 했다.

양학선은 4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 마루 연기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부위 통증이 재발해 기권했다. /김민준기자

김효주, 금호여자골프 2연패



5일 중국 위해 웨이하이 포인트 골프장에서 열린 2015 금호타이어여자오픈 마지막 라운드 4번홀에서 김효주와 장하나가 지한솔의 퍼팅을 지켜보고 있다. /KLPGA 제공

평산산 4타차로 가볍게 제쳐

김효주(20·롯데)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김효주는 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포인트 골프장(파72·614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하지만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중국여자골프의 간판 펑산산(6언더파)을 4타차로 가볍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장수연(5언더파)은 3위를 차지했다.

김효주와 동반플레이를 펼친 장하나는 지난주 비씨카드 한경레이디스컵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후반에 더블보기를 2개를 적어내는 등 3타를 잃고 공동 4위(3언더파)로 대회를 마쳤다.

김효주는 이번 우승으로 2012년 아마추어 자격으로 우승한 롯데마트 여자오픈을 포함해 KLPGA 투어 통산 9승을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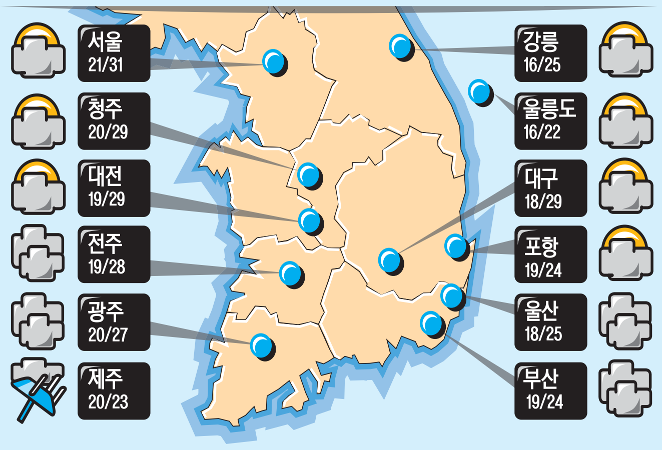
오늘의 광주 하계U대회 6일

▲수영= 남자 접영 200m·평영 200m·배영 50m·자유형 400m, 여자 개인혼영 200m·배영 100m 예선(8시30분)
남자 접영 200m·평영 200m·배영 50m, 여자 개인혼영 200m·배영 100m 준결승(19시19분)
남자 자유형 200m·개인혼영 200m·자유형 400m, 여자 평영 100m·자유형 100m 결승(19시52분·이상 남부대 국제수영장)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여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예선 및 결승(11시·남부대 국제수영장)
▲수구= 남자 한국-싱가포르(20시·염주실내수영장)
▲양궁= 리커브 남녀 개인·단체·혼성(9시30분·광주국제양궁장)
▲배드민턴= 남녀 단체전 예선(9시·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야구= 한국-일본(18시·광주KIA챔피언스필드)
▲농구= 여자 한국-캐나다(17시30분·영광스포티움체육관)
남자 한국-중국(20시·동강대체육관)
▲펜싱= 플뢰레 남자 개인전 예선 및 결승(9시)
사브르 여자 개인전 예선 및 결승(14시·이상 김대중컨벤션센터)
▲축구= 여자 한국-아일랜드(16시30분·나주공설운동장)
▲체조= 남녀 개인종합 결승(14시30분·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핸드볼= 여자 한국-중국(16시·고창군립체육관)
남자 한국-멕시코(20시·구례실내체육관)
▲유도= 여자 52kg급·57kg급, 남자 66kg급·73kg급 예선 및 결승(9시·염주빛고을체육관)
▲조정= 남자 더블스컬·경량급 싱글스컬·경량급 더블스컬·싱글스컬 준결승(9시42분)
여자 더블스컬·경량급 싱글스컬·싱글스컬 준결승(10시24분·이상 충주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사격= 남자 트랩·50m권총 본선(9시)
여자 25m 속사권총·50m 소총복사 본선(9시)
남자 트랩·50m 권총, 여자 25m 권총 개인 및 단체 결선(14시·이상 나주전남종합사격장)
▲탁구= 남녀 단체전 예선(10시·장성홍길동체육관)
▲테니스= 남녀 단·복식 2,3회전(9시·진월국제코트)
▲배구= 여자 한국-콜롬비아(15시·호남대체육관)
남자 한국-체코(18시·염주종합체육관)

날씨

7/6 월 일출시각 05:17 일몰시각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9
			4		9		1	3
6		8	2	9			3	
			6			8	2	
3		7						
				6		3		
		4	3	2			7	5
2		5					9	

	1							
5						7	2	9
				3	2	4		
				4	9			
		7	8					3
		5	3			9	8	7
	7	2			4		1	8
	5				3	2		
	4			1	8	3		

스도쿠 정답

7	4	3	8	1	2	5	6	9
1	9	2	5	3	6	7	8	4
5	8	6	4	7	9	2	1	3
6	5	8	2	9	7	4	3	1
4	1	9	6	5	3	8	2	7
3	2	7	1	8	4	9	5	6
8	7	1	9	6	5	3	4	2
9	6	4	3	2	8	1	7	5
2	3	5	7	4	1	6	9	8

2	1	9	4	5	7	8	3	6
5	3	4	1	8	6	7	2	9
7	6	8	9	3	2	4	5	1
1	8	3	7	4	9	5	6	2
6	9	7	8	2	5	1	4	3
4	2	5	3	6	1	9	8	7
3	7	2	5	9	4	6	1	8
8	5	1	6	7	3	2	9	4
9	4	6	2	1	8	3	7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근거리 승객' 거부택시, 처벌 받을까

생활 법률



갑작스러운 야근에 12시가 다 돼서야 퇴근하게 된 A씨. 다음날 출근을 위해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목적지를 밝히는 A씨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승차 거부의 이유였다. 지하철로 두 정거장 거리라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늦은 밤 12시는 위험한데다 무엇보다 몸이 너무 피곤해 걸을 수가 없었다. A씨는 근거리 승객을 거부한 택시가 잘못한 것인지 자신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상황은 명백한 택시기사의 잘못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할관청 홈페이지나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를 받게 된다. 2회 위반 시는 40만원, 3회는 60만원으로 매회 과태료가 두 배 증가한다. 1차 경고를 받은 택시가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10일, 3회 위반 시 자격 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다.

예약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똑바로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쉬는 차', '공장행' 등의 표시를 하고 정차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요구 사항을 파악했는지 여부가 승차 거부의 기준을 가르는 셈이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거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운행을 요구할 때다.

그러나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 사업구역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연미란기자 acto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질병도 없는데 체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육식을 피하고 두부 등 콩류를 섭취하세요

행복고양이 여자 76년 2월 3일 양력 8시30분

Q 딸이 한명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4~5년 전 부터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딸아이 밥챙겨 주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겨우겨우 직장만 다닙니다. 영양제, 한약, 산양삼 등 챙겨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특별한 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도 사주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둘째도 안 생겨서 못 낳았는데 요즘 체력으로는 임신도 어렵고 낳는다 해도 키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주에는 40세 이후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 건강이 사주와 관련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주를 부여받고 오장육부가 사주로 표기되듯이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이 사주에 의해 이뤄집니다. 사주풀이해석을 공식대로 맞게 하면 잘 맞는 것이고 사주풀이를 잘 못하면 안 맞게 되어 틀리네 마네 미신이네 아니네.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네. 등등의 사설이 붙는 것입니다. 금목상전(金木相戰)하고 있는데 사상체질 이론으로 유명한 이제마 선생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한바와 같이 사람마다 선천적인 병 체질은 인간이 모태에 입태 할 때의 천지운기가 그 사람의 체질이 결정된다 했습니다. 고서를 찾아보니 포태분별 법으로 귀하는 온수목욕이 몸에 좋으며 지나친 육식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콩이 잘 맞는 체질이며 유익한 음식은 두부, 된장, 호두, 땅콩, 들깨. 수수. 밀가루, 매실, 밤, 배, 계란, 수박, 우유, 명란, 당근, 더덕, 도라지, 마, 무, 버섯, 연근, 율무 등이 좋으며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메밀이나 조개류, 생굴, 새우, 게, 포도, 곶감, 돼지고기, 인삼차는 피하라 했군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하면서 가려 먹는 것이 아니고 입맛에 댕기면 그걸 먹는 것이 원칙인데 이왕 음식을 섭취할 때 될 수 있는 한 유익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과음과식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수탉 1마리와 산도라지 300g과 은행 한 홉을 넣어 끓여 기름을 걷어내고 먹고 나서 병명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을 찾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참고 할 사항이므로 약으로 먹는다면 먹기 전에는 전문적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겠지요. 아기는 일단은 체력을 키우고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6일 (음 5월 2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만남이 있으나 언쟁을 주의 해야 합니다. **60년생**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72년생** 일은 열심히 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84년생** 추진함은 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소 — **4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상기하세요. **61년생** 주변사람들과의 감정싸움을 주의하세요. **73년생** 인간관계가 순조롭고 재물운이 있습니다. **85년생**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호랑이 — **50년생** 큰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62년생** 금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4년생**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6년생** 업무적으로 바쁜 하루가 됩니다.

토끼 — **51년생** 손실이 있으나 정신을 차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63년생** 큰 결정은 잠시 미루세요. **75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용 — **52년생** 귀인에게 자문을 구하면 성공합니다. **64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76년생** 동남방이 길한 방향입니다. **88년생** 고집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세요.

뱀 — **53년생** 생활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사세요. **65년생** 차분한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77년생** 힘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집 안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말 — **54년생** 금전,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66년생**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락합니다. **78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합니다. **90년생**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 — **55년생** 선물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67년생**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음주를 삼가세요.

원숭이 —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80년생**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92년생** 능력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닭 — **57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69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1년생**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93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개 — **58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70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집니다. **82년생** 돼지띠나 용띠의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옵니다. **94년생** 안정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돼지 — **59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 **71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83년생** 어렸을 때 친구와 만나게 됩니다. **95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귀하를 돕는 것입니다.

'부유층 탈세와 부정부패' 예견된 그리스 비극



김하성의 세상보기

그리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해야 할 16억 유로(약 2조원)를 갚지 못한 그리스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되고 국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자본통제가 시작되면서 경제도 마비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5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협상이 유동적이지만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그리스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원인은 과도한 복지지출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이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2010년 재정 위기 이후 2400억유로 (약300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고도 경제정책 실패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좀더 속내를 들여다보니 포퓰리즘 요인만은 아니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리스 재정위기 본질이 부유층 탈세와 부정부패가 낳은 예견된 비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선박왕등 해운업으로 부(富)를 일군 부자가 많기로 유명하다.

그리스 재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사업 등록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스위스 은행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다. 부유층과 고소득자들의 연간 탈세액이 무려 30조원에 달해 이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부유층은 세금을 기피하고 세금 징수에 소홀한 정부는 과잉 복지로 돈을 펑펑 써대니 국가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 몰락의 또 다른 요인으로 '파켈라키(Fakelaki)'를 꼽는다.

그리스어로 파켈라키는 '작은 봉투'로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뜻한다.

그리스에선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을 만큼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이는 부유층의 탈세를 방조한 이유이기도하다.

이런 점을 들어 국제투명성기구는 부유층의 탈세와 부정부패가 그리스를 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 금융위기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진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온라인상에는"IMF때의 악몽을 잊어선 안된다", "저 꼴안 당하려면 지금부터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 사태는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한 우리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강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더욱 우려되는것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15개국에도 금융 위기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메르스 여파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스 사태까지 겹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구조개혁을 거부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로 파국을 맞은 그리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뉴미디어국장

社說

'述而不作'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

<술이부작>

재벌들이 독립언론 메트로신문을 '사이비'라고 낙인찍었다.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단체 광고주협회가 지난 1일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심한 사이비 행위 매체'로 메트로신문을 지목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애초부터 메트로를 겨냥했다는 의혹이 짙다. 메트로신문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온 재벌들의 불편한 심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듯하다.

사실 메트로는 요즘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독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과거의 무료신문과는 달리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 왔다. 지금까지 '평온'하게 지내오던 재벌들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의 화살을 날려보냈다. 애써 무시해 오던 '무료신문'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재벌들로서는 더 아팠을 것임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이른바 '유력지'를 비롯해 우리나라 언론은 재벌이 던져주는 '꿀케이크'에 순치돼 왔다. 재벌의 입장을 받아쓰기에 급급했다. 그런 '영혼없는 신문'의 아부와 아첨을 보면서 재벌은 오만해졌다. 반면 언론이 조금만 비판해도 참으려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돈으로 지면을 매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 왔다. 그런 가운데 재벌 내부에는 허점과 과오가 누적되고, 경쟁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재벌 병원에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재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오만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메트로신문은 기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으로 신문을 제작한다. 그 어느 정당이나 기업도 특별히 친애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훌륭한 것은 훌륭하다고 아낌없이 평가해 준다. 이번에 부당하게 공격당했다고 해서 평상심을 잃지도 않는다. 다만 언론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할 뿐이다. 그러니 메트로신문의 '술이부작' 정신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은 스스로를 해칠 따름이다.

화장품이 된 물티슈, 영세업체 혼란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물티슈를 '화장품 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안전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안전한 보존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업계는 두 손들고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식약처가 고시한 59개 목록에 없는 성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분을 교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제조 판매 등록을 위한 서류 처리하는 것도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잦은 성분 교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은 대체 성분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어느 성분이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 기준치는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성분 개발은 물론 보존제 배합 비율 등은 전문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화학 보존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천연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가는 2, 3배로 높아진다. 식약처가 이들에게 준 고육책은 연말까지라는 계도기간이다.

대규모 업체를 비롯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은 성분을 교체했다며 품질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 외에 영세한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규제는 까다로워졌다. 물티슈를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살균 보존제 성분은 식약처가 고시한 59개 목록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물티슈에는 세균과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하나 이상의 보존제를 배합해 넣는다. 공산품으로 물티슈가 분류됐을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다. 때문에 화학 보존제가 들어간 물티슈는 유해성 논란에 시달려 왔다.

물티슈 시장은 이례적으로 호수의나라 수오미·몽드드·더퍼스트터치와 같은 중소 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 규모를 넘어 품질력으로 승부를 본다면 중소업체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닌 대체 성분 제시 등 영세업체들에게 법 개정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안을 마련해줬더라면 혼란은 덜하지 않았을까. 법 개정이 대기업과 인지도 높은 브랜드에게만 물티슈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중소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제품을 만드는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업계와 식약처의 배려가 필요하다.

해외직구족 울린 업체들 대거 적발

소비자 119

'해외직구'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을 떠넘기거나 거짓광고를 일삼은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요 해외구매대행업체인▲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주)인터커머스코리아▲(주)토파즈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11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요구로 반환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했다. 반품비용 외에도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상품파손, 오배송 등으로 청약철회한 경우에도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상품이 표시나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드러났다. 다른 쇼핑몰이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팔고 있음에도 홈페이지에 '인터넷 최저가'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값에 판매하는 상품을 '모바일 특가'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거래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약관을 마련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였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되도록 해외구매대행 시장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과장 이정한 ▷노사관계법제과장 오영민 ▷강원지청장 김영미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장 박순영

■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급 전보 ▷검사역실장 정병철 ▷미디어연구센터장 김영주 ▷미디어진흥실장 최광범 ▷지역관리실장 권선준 ▷뉴스유통국장 최지훈 ▷대전지사장 정봉근 ▷경영지원팀장 송윤숙 ▷경영혁신팀장 안익균 ▷언론인연수팀장 정대필 ▷국제교류팀장 백민수 ▷미디어교육팀장 나은미 ▷매체2팀장 금장환 ▷매체협력팀장 서인식 ▷유통지원팀장 황호출 ▷뉴스저작권팀장 양승혜 ▷뉴스빅데이터팀장 조영현 △승진 <1급 국장> ▷경영기획실장 이동우 ▷재난안전관리단장 최광범 ▷광주지사장 노성환 <1급 대우> ▷미디어진흥실장 정봉근 ▷지역관리실장 정병철 ▷광고국장 이종경 <2급 부장> ▷언론지원팀장 최대식 ▷뉴스저작권팀장 정대필 <2급 책임연구위원> ▷연구팀장 최민재